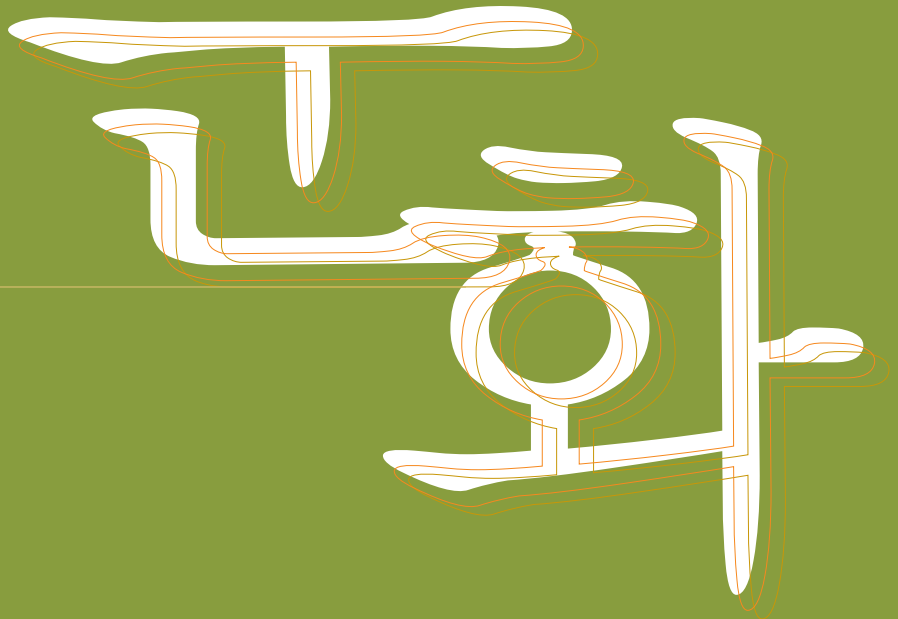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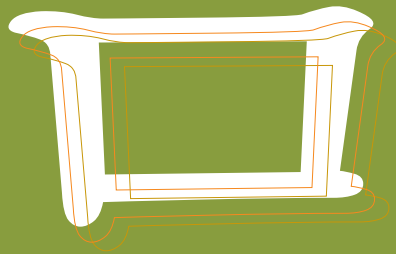


한글리

2010.11 Vol. 220 November





제8회 국민의 시 낭송의 밤

“시”로 두드리는 가을, 당신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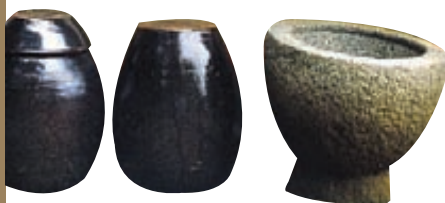
일시 | 2010.11.25(목) 17:30 장소 | 국회 의원회관(대강당)
주최 | 대한민국국회, 한국문화원연합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Contents

2010. 11 Vol. 220 November

02	내 마음의 시	비 오는 날의 한강
03	연합회 소식	문화원의 날, 문화의 달 행사
06	특별기고	문화관광부, 2010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선정 발표
08	한 지붕 한 술밥	충남 연기문화원
10	문화를 잡아라	여주에서 풍성한 한글날 행사 가져
14	통하는 이야기	전국 문화의 집 동아리 축제
16	세계속의 우리 문화	한글과 세종대왕
22		종묘(宗廟)
26	책 수집가 안정웅의 오거지서 (五車之書)	딱지본의 추억을 찾아서
32	안식의 전환_가족, 아버지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36		아버지_ 부모와 자식은 영원한 그늘이 된다
40		아버지에 대한 소고
44	한국의 예절	공통예절
54	연합회 레이다	문화원 이모저모
59		우리 문화 소식
60		원장 동정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 주소 우기21-716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od.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 · 편집인 최중수 | 편집위원 관호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중영(국립역사지회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준현(삼남문화원장) | 편집발행 문진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832-7924 | 인쇄 태양씨엔피 02268-2111 | 표지 사진협조 평택문화원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il로 보낼 경우 3000자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 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 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정가 3,000원

비 오는 날의 한강

비 오는 날
한강은 멀다

한 걸음씩 멀어져 가는
서로의 세상살이는
길고 지루하구나

비가 내린다
떨어지는 빗방울은
떨어지면서 누워버리고
자동차가 누운 자를
사납게 치고 달린다

재 처럼 메마른 이 세상에
손짓을 되풀이 하는
이별의 모습으로

비 오는 날
한강은 멀다.

동아일보사와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 문화원 연합회는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지방문화원이 이루고 있는 지역문화 창달의 성과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동아일보사와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 체결은 2010년 10월 4일(월)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아일보사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동아일보는 전국문화원의 활동상을 적극 보도하며 연합회는 동아일보사가 추진하는 종합편성채널과 관련된 정보 제공 등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동아일보-227개 지방문화원, 방송콘텐츠 제작 손잡았다



지역문화를 통해 한국문화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전승하기 위해 동아일보와 전국 227개 지방문화원이 손을 잡았다. 동아일보와 한국문화원연합회는 4일 향토문화의 보존 전승

발굴 및 계발을 통한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해 동아일보가 추진하는 종합편성채널의 방송 콘텐츠 제작과 공익활동에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과천문화원장), 박인호 부회장(은평문화원장), 오용원 부회장(평택문화원장) 등이 참석해 신뢰를 다졌다.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동아일보가 추진하는 종합편성채널은 한국문화원연합회와 227개 지방문화원이 축적한 역사, 생활, 예술, 문화자원을 활용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민들이 전통문화를 비롯해 새롭게 창조되는 지역문화를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에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1962년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별법인이다. 지방조직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지회가 있으며, 전국 234개 시군구에서 활동하는 227개 지방문화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지방문화원은 1947년 강화문화원이 최초로 설립된 이후 전국 각 지역에 뿌리를 내려왔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며 파괴된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활력 넘치는 지역문화를 창조하는 거점기관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전국 시도지회장과 지방문화원장 2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동아일보와의 MOU 체결을 결정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언론사와 협력관계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측은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1일 창간 당시부터 문화주의라는 사시

(社是)를 독자와 함께 실천해 왔다"면서 "지방문화원의 활동과 동아일보가 추구하는 방향에 공통점이 많다"고 협력 결정 이유를 밝혔다.

최 연합회장은 체결식에서 "동아방송은 한국방송의 신기원을 열며, 유익하고 품격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했다"며 동아방송이 종합편성채널로 새롭게 복원돼 지역문화의 보존·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전국 227개 지방문화원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문화활동과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해 한국문화의 부흥에 기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 부회장은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만을 고집하지 않고 문화 관련 평생교육, 사회교육으로 활동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지역민들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문화원의 활동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문화원연합회는 8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2010년 전국 문화원의 날 기념식'을 서울 동작구 상도2동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동작문화원)에서 개최하였다.

최종수회장 "전통문화 옛것 치부하는 현실 안타깝다"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문화비전 선언을 통해 2007년 제정된 ‘문화원의 날’이 10일로 4회째를 맞는다. 광복 후인 1947년 인천 강화군에 처음 설립된 문화원은 1962년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현재, 전국 227개 시·군·구에 뿌리내렸다.

지방문화원 연합체인 한국문화원연합회는 227개 지방문화원의 역량을 한 데 모으고, 지역 고유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문화원의 날을 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227색 지역문화 교류의 장이 될 ‘2010 전국 문화원의 날’을 앞두고 6일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69)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연합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최 연합회장은 “60여 년의 역사를 거치며 지방문화원은 활

력 넘치는 지역문화를 창조하는 중심거점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문화원이 지역민 누구나 생활에서 문화를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를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는 생활이자 삶, 방송언어 순화해야”

최근 문화원의 활동은 지역 고유문화 발굴, 보존, 전승에서 점차 범위를 넓히고 있다. 문학·서예 등 문화예술강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세대소통을 위한 문화제, 지역 전통문화를 활용한 축제 등 지역민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다.

8월 경기 평택문화원에서는 주한미군 자녀와 한국 어린이 90명이 함께 5일 동안 국악동요와 외국동요, 태권도 등 양국의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하는 ‘한·미 어린이 썸머스쿨’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지방문화원은 행정안전부의 분권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체단체별로 문화원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최 연합회장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거나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문화원장이 사재를 조달해 운영할 만큼 열악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최 연합회장은 전통문화와 향토문화를 ‘옛것’으로 치부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지역 문화단체들이 향토문화에는 관심을 잘 두지 않는다.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활성화하는 것이 지방문화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전통문화는 선인(先人)의 문화 가운데 이 시대에도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로 옛 문화와는 다르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최 연합회장은 “전통문화의 가치 위에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야 우리 문화가 꽃 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화원 사람들이 전통만 고집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다”면서 “변화하는 세상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 지난 주 휴대전화를 바꿨다”며 최신 스마트폰을 꺼내 보였다.

최 연합회장이 말하는 ‘문화’는 생활문화이자 삶이다. 그는 “생활문화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요즘 방송을 보면 비속어와 은어가 난무하고, 가족이나 친지 간 큰 소리를 내며 막 대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방송이 바뀌지 않으면 어린이, 청소년 교육이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2010 전국 문화원의 날 기념식 문화원이 향토문화 발굴 계승 앞장



5개 분야 18곳 문화원상 수상

전국 227개 문화원 간 교류와 역량결집의 장인 '2010 전국 문화원의 날' 기념식이 8일 서울 동작구 상도2동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날 기념식에는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등 각계 인사와 전국 지방문화원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기념사에서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개최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가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때"라며 "문화원이 문화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향토문화를 발굴, 계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축사를 통해 "1920년 창간 이래 문화주의를 3대 사시(社是)의 하나로 삼고 실천해 온 동아일보는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원의 노력과 맥을 같

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2010 대한민국 문화원상' 수상자로 선정된 총 5개 분야 18개 문화원(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종합경영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충남 연기문화원

▶ 종합경영 지역별 우수상
인천 연수문화원, 경남 김해문화원, 전남 영암문화원

▶ 우수 프로그램 부문
경기 성남문화원, 경기 군포문화원

▶ 창의활동 부문
윤병진 강원 원주문화원 사무국장

▶ 문화협력 부문
여인국 경기 과천시장, 정구복 충북 영동군수,
김순열(사업)

▶ 문화창달 부문
국악예술단, 극단아랑, 조오환 전남 진도문화원 부원장,
이병생 경남 합천문화원 사무국장,
천정석 충남 온양고 교사, 정기호 목우서각연구소장,
강원 동해문화원, 경북 성주문화원



나누는 문화 아름다운 세상

문화관광부, 2010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선정 발표

문화훈장,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유공 공무원 표창

2010년 문화의 날 기념식
10.16(토) 오후 6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시상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문화예술발전 유공, 『문화훈장』 수훈자와 『제42회 대한민국문화 예술상(대통령상)』 및 『2010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장관표창)』 수상자 등을 선정·발표하고, 10월 16일(토) 오후 6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개최한 ‘2010년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서훈 및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올해 수훈자와 수상자는 전국의 문화예술단체,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일반국민 등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후보자 공적심의·추천과 정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문화훈장 서훈은 총 21명으로, 작고 서양화가故 전혁림에게는 은관문화훈장을 추서하였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황동규, 사단법인 한국시인협회 평의원 오택번, 피아니스트 백건우, 대한민국예술원 음악분과 회원 권오성 등 4명에게는 은관문화훈장이 수여되었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재홍, C아트 뮤지엄 대표 정관모 등 2명은

보관문화훈장이 수여되었고, 前 진화랑 회장 故 유위진, 前 사단법인 진주민속예술보존회 이사장 故 성계옥에게는 옥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으며,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술협회 고문 제리와츠키(Jerry Wartski), 토탈미술관장 노준의, 사단법인 한국 미술협회 고문 강정완, 화가 방혜자, 국악인 윤미용, 연극연출가 강영걸 등 6명에게는 옥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지방문화원에서 활동한 공적으로 진도문화원장 김정호, 前 문경문화원장 채대진, 前 유성문화원장 한근수 등 3명과,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 김창수, 옥전문화연구원장 진말레(예명 : 진말숙), 재단법인 유니버설문화재단 이사장 문훈숙 등 6명에게는 화관 문화훈장이 수여됐다.

김정호(金井昊) 진도문화원장은 1937년 출생하였고, 조선대 행정대학원 연구과를 수료하였으며, 전 한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진도문화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문화예술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예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채대진(蔡大鎭) 전 문경문화원장은 1942년생, 경희대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고, 문경문화원 원장을 역임했다. 문경문화원 원장 재임 중 문화진흥사업 및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화관문화훈장이 수여된 한근수(韓近洙) 전 유성문화원장은 1958년생으로,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고 유성문화원장을 역임한 후 현재 대전광역시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성문화원장 재임 중 지역 문화와 기업메세나 운동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활동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로 42회째가 되는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수상자는 문화일반부문에 (주)신시컴퍼니 대표 박명성, 문학부문에 시인 박명자(예명 : 박라연), 미술부문에 김달진미술연구소장 김달진, 음악 부문에 KBS 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이준호 등 4명과 연극·무용부문에 발레단체인 서울발레시어터 1개 단체이며, 대통령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 1천만원을 각각 수여했다.

아울러 장래가 촉망되는 20~30대의 젊은 예술가들을 선정하여 '93년부터 시상해오고 있는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의 수상자는 문학부문에 소설가 편혜영, 미술부문에 도예가 최윤정, 디자인부문에 (주)디스트릭트 홀딩스 대표 최은석, 건축부문에 (주)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장 신승수, 음악부문에 작곡가 이우준, 전통예술부문에 판소리 만들기'자' 음악감독 이자람, 연극부문에 극작가 배삼식, 무용부문에 국립무용단 단원 장현수 등 8명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패와 부상으로 상금 5백만원을 각각 수여했다.

한편, 문화예술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문화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발굴하여 함께 포상했는데, 서울 노원구청 최미숙, 경기도 시흥시청 김용진, 전남 목포시청 이흥성, 강원도 원주시청 박정희, 경기도 부천시청 김영창, 대전 동구청 허민욱 등 6명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얼과 역사가 살아 있는 조치원

충남 연기문화원

전국 227개 지방문화원의 축제인 '2010 전국 문화원의 날 기념식'이 8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상도2동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동작문화원)에서 열렸다. 이 날 '2010 대한민국 문화원상' 시상식에서 연기문화원이 영예의 종합경영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최종수)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날 기념식은 올해로 3회째 개최됐으며, 전국 지방문화원 관계자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부 장관 표창과 '2010 대한민국 문화원상'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국 227개 문화원 중 문화원 상위 15%에 해당하는 문화원을 대상으로 1차 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통하여 종합경영 부문에서 대상 1곳, 우수상 3곳이 선정된 가운데 연기문화원(원장 임영이)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한민국 문화원상 종합경영 부문에 대한 심사기준은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15점), 프로그램의 운영 수준(25점), 문화인력 양성 교육에 대한 평가(20점), 문화원 종합경영 평가(20점), 문화원 위상제고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10점)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사위원은 7인의 외부 문화계 인사로 구성되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연기문화원(원장 임영이)은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예술교육 및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한 성과를 거두었다. 인간문화재 23호(전수조교) 강정숙 선생을 초빙하여 '우리 가락 꿈나무 예술가'를 키우는 교



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1사 1문화원 운동으로 일미농산, 농협중앙회 연기군지부, 서창산업 및 각종 단체의 후원으로 문화소식지를 발간하고, 꿈나무 예술인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매년 열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소외계층과 문화관련 단체를 연계한 사업, 전문교육과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호응과 신망을 얻고 있다.

특히, 연기문화원이 지역의 전통문화 발굴 사업과 관련해서 연기향토사연구소와 전통놀이 연구소를 부설 기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기소리예술단과 문화원 풍물단은 각종 대회에서 여러 차례 상을 받으면서 실력을 인정받아 연기문화원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

연기문화원은 1962년 11월 4일 조치원문화원 설립 발기인회가 발족되면서 출범하여 1964년 10월 14일 설립허가를 받았다. 1993년 9월 28일에는 시범문화원으로 지정(제947호)받은 바 있고, 이어서 1998년 9월 28일에는 한국문화학교(제130호)로 지정되면서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어서 2004년에는 군민회관을 위탁 관리하였고, 지난 해 2009년 8월 6일에 문화원의 명칭을 <연기문화원>으로 변경했다.

조치원은 예로부터 경부호남선이 지나는 천안과 대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려 충렬왕 16년에 몽고의 침입을 물리 친 대첩지이다.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당도가 높고 향이 좋은 복숭아가 많

이 생산되고, 국보와 보물을 간직한 고찰 비암사가 있으며, 누구나 쉬고 즐길 수 있는 군립공원 고북저수지가 있는 곳이다. 충신, 효자, 효부, 열녀가 많이 배출되었을 뿐 만 아니라 인심이 후덕하여 이곳을 지나는 이 격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곳이다.

임영이 원장을 중심으로 연기문화원은 주민 계층별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색 있는 것을 꼽는다면, 옛 선현들의 발자취와 지혜의 숨결을 찾아 상세하게 재조명하는 일로써 연기 문화, 아홉거리, 아미산, 도봉산, 기도봉에 얹힌 사연, 각 면지 등을 출판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글짓기, 웅변대회, 어린이 바둑왕 선발대회, 내 고장 문화탐방, 어머니들에게는 수지침, 컴퓨터 교육, 생활영어, 풍수지리, 생활요리, 사물놀이, 생활한복 만들기, 노인분들을 위한 문화유적 탐방 프로그램 운영, 효도관광, 노인대학, 장기자랑, 민속한마당 등 다양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연기문화원의 향토사료실에 가면 이 고장의 많은 사료와 교육보조자료(CD, 비디오)를 보유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향토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여주에서 풍성한 한글날 행사 가져





10월 9일 한글날, 세종대왕의 숭고한 정신과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일깨워 주고, 한글이 반포된 지 564돌을 기념하기 위한 '제564돌 한글날 기념식'이 능서면 왕대리 세종대왕릉 정자각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범관 국회의원, 김춘석 군수, 김규창 군의회 의장, 황성태 도 문화관광국장, 각 기관·사회단체장, 여주군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경기소리보존회의 '경기민요', 전통예술원의 '화관무', 경기도립국악단의 '궁중정재음악', 전통예술단의 '창작 궁중정재' 등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오전 11시부터 김병찬·남윤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시작된 공식행사는 내빈소개, 국민의례, 헌화와 분향, 훈민정음 서문 봉독, 기념사, 환영사, 축사, 축시, 한글날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성우 반재원씨가 훈민정음 반포 당시의 음가를 재현해 훈민정음 서문을 봉독했다.

김춘석 군수는 환영사에서 "국력이 신장되면서 한글의 쓰임새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한글의 위대성을 재조명하고, 훈민정음 반포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한글날을 경축한다"고 말했다.

김규창 군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1970년에 공휴일로 제정돼 1990년에 폐지된 한글날이 다시 국경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며 "세종박물관도 여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서도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전행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경기소리보존회의 '경기민요',
전통예술원의 '화관무',
경기도립국악단의 '궁중정재음악',
전통예술단의 '창작 궁중정재' 등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오전 11시부터
김병찬·남윤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시작된 공식행사는
내빈소개, 국민의례, 헌화와 분향,
훈민정음 서문 봉독, 기념사, 환영사,
축사, 축시, 한글날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국가공식기념 낭송가인 공혜경씨가 일제 식민지의 현실적 고통을 절감하면서 아름다운 우리글로 표현한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을 낭송해 참석자들의 감성을 자극했으며, 세종합창단의 한글날 노래제창을 끝으로 공식행사를 마쳤다.

한편, 정오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사극전문배우 및 엑스트라, 취타대 등 150여명이 참여해 여주시내 일원(여주군청→여주경찰서→여주티미널사거리→여주홈마트→홍문사거리→여주읍사무소→상리교차로→여주교육청→여주군청)을 행렬하는 어가행차를 재현했다.

오후 1시 50분부터 3시 30분까지 여주읍 중앙로 상설무대에서 아카펠라(시즌), 비보이 퍼포먼스, 전자바이올린(박은주), 취타대 공연과 더불어 훈민정음 반포식 재현, 한글서에 퍼포먼스 등이 열렸다.

또, 오후 1시 20분과 3시 30분 펼쳐진 줄타기 공연과 오후 4



시부터 5시까지 열린 이주민 우리말 경연대회(대왕님 귀좀 빌려 주세요)도 한글날의 풍성함을 더해 줬다.

이 밖에 세종대왕릉에서는 '한글, 가을, 단풍, 코스모스길, 남한강'이라는 5가지 시제를 가지고 전국세종백일장 및 미술대회가 열렸으며, 세종대왕릉과 여주읍 중앙로에서 한글 사랑 티셔츠 만들기, 한글사랑 손수건 만들기, 훈민정음 탁본체험, 사랑의 뺑지 만들기, 한글 페이스페인팅, 가훈 써 주기, 맛있는 한글날, 본국에 무료 국제전화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전국 문화의 집 동아리 완주에 집결하다.

주민이 주인공 문화예술 동아리,
전국 문화의 집 축제에 풍덩 빠졌다.



주요한 프로그램을 보면, 공연 동아리들의 공연 한마당, 체험 동아리들의 체험장터, 창작 동아리들의 창작 전시회, 동아리의 발전을 모색한 포럼, 생활속의 창조작품 등을 판매하는 삼레장 등이었다.

행사장을 찾은 이들은 주인과 객이 따로 없었다. 서로가 한데 엉기어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기도 하고, 작품을 사주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나누어 주는 등 그야말로 네트워크의 한마당이 그곳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15, 16일 완주군 삼레에 소재한 문화체육센터에 전국 문화의 집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주민이 주인공 문화예술 동아리 축제 - 2010, 문화의 집에서 놀다’를 함께 하기 위해서다. 문화의 집을 근거지로 하여 만들어진 동아리는 전국에 800여개에 달한다.

이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속내를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는 완주에서의 집결이 최초이다.

이번 행사는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완주문화의 집이 주체가 되어 나선 일이다. 과거 시설 중심의 문화의 집이 갖는 우월성에서 이제는 주민들의 삶속으로 스며들며 일상을 문화적으로 가꾸는 일의 중심이 바로 문화의 집이었고, 그 중심에 바로 동아리들이 있었던 것이다.

시통팔달의 교통요지이자 전국 유일의 역참박물관이 있는 곳이자, 동학 농민군의 2차 봉기의 집결소였던

삼레에 완주 문화의 집이 자리잡고 이 일들을 해 낸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동아리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장끼의 보따리와 신명을 풀어내며, 이들간의 일정을 흥미진진하면서 나눔의 한 마당으로 승화하며 보낸 것이다.

주요한 프로그램을 보면, 공연 동아리들의 공연 한마당, 체험 동아리들의 체험장터, 창작 동아리들의 창작 전시회, 동아리의 발전을 모색한 포럼, 생활속의 창조작품등을 판매하는 삼레장 등이었다.

행사장을 찾은 이들은 주인과 객이 따로 없었다. 서로가 한데 엉기어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기도 하고, 작품을 사주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나누어 주는 등 그야말로 네트워크의 한마당이 그곳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축제 현장을 찾은 광주에서 온 황보영씨는 “문화의 집의 활동이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몰



이런 축제장을 찾은 이들을 위해 마련한 완주문화의집의 10돌 밥상은 이 고장의 로컬푸드 대표 특산물로 삼례 학동마을의 들큰한 청국장과 두레농장이 있는 소양인덕 마을의 인심 가득한 참나물 비빔밥, 산초향 가득한 목은지 볶음에 청량한 땅에서 자란 콩 100%로 완성된 두부와 동동주 한 사발이 방문객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었다.

이 또한 완주문화의 집이 생활속 문화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발굴하고 개척했던 대표적인 곳이다.

랐는데 한꺼번에 볼 수 있어 좋았고, 특히 예술가와 아마추어를 구분하는데만 익숙했던 태도에서 이제는 나도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말한다.

그녀의 말처럼 문화의 집은 삶속의 문화를 추출하는 데 탁월한 재주를 지닌 곳이라 여겨진다.

대수롭지 않은 나무들이 다양한 체형 재료가 되어 솥대나 장승으로 변하고, 지역의 시인의 브랜드 이미지가 되어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며, 칠순에 이르는 노인들이 흥부네 박 도깨비던 같은 풍자 마당극을 소화해 내도록 지도하고 견인하는 멘토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런 축제장을 찾은 이들을 위해 마련한 완주문화의 집의 10돌 밥상은 이 고장의 로컬푸드 대표 특산물로 삼례 학동마을의 들큰한 청국장과 두레농장이 있는 소양인덕 마을의 인심 가득한 참나물 비빔밥, 산초향

가득한 묵은지 볶음에 청량한 땅에서 자란 콩 100%로 완성된 두부와 동동주 한 사발이 방문객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었다. 이 또한 완주문화의 집이 생활속 문화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발굴하고 개척했던 대표적인 곳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점을 주는 이번 축제는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축제의 장이 펼쳐지고 진행하였으며, 마무리까지 주체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문화의 소비주체라고 판단하던 과거의 관념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전국문화의 집 동아리들의 집결은 그런 면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전국 143곳에서 다양한 문화를 삶속에서 발굴하고 기



획하여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문화의 전도사로서 문화의집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도 바로 이 축제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주민이 공감하는 것이 바로 문화라는 점이며, 이들 토대로 다양한 변주와 변형을 통해 지역문화의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매개하는 것이 앞으로의 역할을 오롯이 새길 수 있는 마당이었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문화의 집을 관심있게 살피고 활용하는 것이 지역문화 발전의 토대로 문화의 집을 활성화 시키는 길 아닐까. 다시 그들이 만날 날을 기대해 본다.

우지연 한국문화의 집 협회 사무국장



한글과 세종대왕

올해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지 564돌이 되는 해다. 지금껏 국내에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는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 세종대왕이며,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한글을 꼽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민족의 긍지요 자랑으로 세종대왕이 우리의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가운데에서도 1469년 세종대왕릉이 광주로부터 옮겨 온 뒤 여흥(驪興)에서 여주(驪州)로 이름이 바뀐 내력을 가지고 있는 여주인들로서는 대왕과의 인연에 각별한 바가 있다.

오랜 세월 대왕을 곁에 모시고 살아왔던 까닭에 그의 은덕을 기리고 밝히 드러내는 일은 이제, 우리 여주인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 생각한다.

매사가 그렇듯이 제대로 알아야 올바르게 밝힐 수 있기에 한글반포를 기념하는 소중한 날에 조심스레 대왕의 진면목을 살피고자 한다. 세종대왕이 이루고자 했던 이상세계는 융평(隆平)과 풍평(豊平)의 세계였다.

‘내가 부덕한데도 신민의 위에 있으니 밤낮으로 다스림을 펴하여 융평에 이르기를 기약한 지 무릇 8년이 되었다.’ ‘아아! 천심을 받들어 왕도를 행하고 두루 넓고 큰 어짐을 베풀고 제왕의 가르침을 펴 민생을 애홀히 여김으로써 영구히 풍평의 정치에 이르러 한다.’는 세종대왕실록의 기사는 임금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백성의 평안을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대왕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왕의 이상세계는 그의 민생론에서 좀 더 구체성을 띤다.

‘전답에서 힘써 농사지으며 우리러 섬기고 굽어 양육케 하여서 우리 백성의 생명을 길게 하고 우리나라의 바탕을 견고히 하며, 가정과 사람마다 넉넉하며 예양의 풍속을 크게 일으켜 때로 화평하고 해마다 풍년되어 다함께 화락하는 즐거움을 누리갈 것이다.’







대왕의 이상세계가 백성과 유리된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아니므로 자연스레 민본중심의 정치를 지향하게 되는데 이는 대왕이 전국 각도에 내린 교서에 잘 나타나 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정치는 백성을 보양하는데 있다. 민생을 돈독히 하여 나라의 근본을 견고히 하는 것이 우선 힘쓸 바이다.’ 대왕이 추구했던 민본의 이념은 곧, 애민정신으로 심화되어 확산된다.

그 의지는 각 고을에 수령을 파견하면서 이들을 친견하고 당부하는 말에서 발견된다. ‘당연히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어야 할 것이니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자네를 사랑하겠는가? 라며 현지에 부임하는 수령들의 마음가짐을 다잡고는 ‘하늘이 만물을 화육함에는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임금의 백성을 사랑함에도 이것과 저것의 간격이 없다.’

또한 ‘노비가 비록 천하지만 천민(天民)아님이 없다.’라고 확언함으로써 하늘이 구별없이 햇빛을 비추고 가림없이 비를 내

돌아켜보면, 세종대왕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깊었으며, 처첩에게 성실하고 자식에게 자애로웠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하에게 공손했고, 백성들을 받들던 분이였다.

이런 마음으로 재위 32년을 일관하였기에 농업, 의학, 과학, 국방, 음악, 천문, 지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빛나는 업적을 이루었고 마침내 한글 창제라는 금자탑을 세울 수 있었으며 태평성대라 칭송받는 자랑스런 시대를 열 수 있었다.



리듯이 편견없이 성심으로 돌보아야 할 백성의 범위가 미천한 노비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대왕의 마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죄인에게도 따뜻하게 열리고 있다. ‘나는 항상 생각하기를 사람의 죄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정에 따라 용서할 수 있다면 모두 용서하고 싶은 것이 나의 본심이다.’

이처럼 대왕은 백성에 대한 절대사랑, 즉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처럼 백성을 어여뻐 대함으로서 이상세계에 도달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대왕의 애민정신은 훈민정음의 창제라는 인류사에 유례가 없는 결실로 나타난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펴지 못함이 많으니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어 사람마다 쉽게 익혀서 날로 씬에 편리하게 하고자 한다.’는 훈민정음 서문의 기록처럼 문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오로지 그들

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일념으로,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한 내부의 고통과 신하들의 강한 반대로 인한 외부의 시련들을 이겨내면서 흔들림 없이 글자를 만들었을 대왕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선하다.

돌이켜보면, 세종대왕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깊었으며, 처첩에게 성실하고 자식에게 자애로웠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하에게 공손했고 백성들을 받들던 분이였다.

이런 마음으로 재위 32년을 일관하였기에 농업, 의학, 과학, 국방, 음악, 천문, 지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빛나는 업적을 이루었고, 마침내 한글 창제라는 금자탑을 세울 수 있었으며, 태평성대라 칭송받는 자랑스런 시대를 열 수 있었다.

그러므로, 후대 임금들이 국가적 난관에 부딪칠 때마다 세종시대를 상고하여 마땅한 해답을 얻었던 것이며, 오늘날에도 한민족이 배출한 최고의 인물로 숭앙받고 있는 것이다.

치열한 국제적 경쟁과 변화무쌍한 한반도 정세앞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전망키 어려운 오늘, 한 시대 모든 백성들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게 하였던 세종대왕! 그분이 그립다.

조성문 여주문화원 사무국장

종묘 [宗廟]



2010년 10월 1일 한국은행은 종묘를 소재로 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시리즈 첫 번째 기념주화를 발행했다. 기념주화의 앞면에는 종묘의 중심건물인 국보 제227호 종묘 정전(正殿)이 들어갔다. 뒷면은 종묘제례 절차 중 초헌례(初獻禮)의 한 장면으로 초헌관이 첫 잔을 올린 후 대축관이 축문을 읽는 가운데 초헌관이 부복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19차 정기총회는 종묘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다. 세계문화유산 등록기준인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양식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혹은 산업의 발전을 대표하는 양식”으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었다.

종묘가 오직 기둥과 지붕이라는 최소한의 건축 요소만으로 구

성되었을 뿐 어떤 건축적 치장이 가해진 바 없음에도 이와 같이 장엄하고 적막감마저 감도는 고요의 공간을 창출해낸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건축사가 뿐만 아니라 현대 건축가들로부터 무한한 찬사를 받고 있다.

굵고 듬직한 기둥들이 동어반복(同語反復)하듯 열 지어 뻗어나가는데 묵직이 내려앉은 맞배지붕이 수직의 상승감을 지그시 눌러주며 절제와 경건의 감정을 자아낸다. 더욱이 종묘건물을



떠받쳐 주고 있는 넓은 월대(月臺)는 이 제의적(祭儀的) 공간에 긴장과 고요를 더 해 준다. 가슴높이에서 펼쳐지는 공간적 위압감이 장엄하고 위대하다는 감정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종묘건축이 지닌 본질 때문에 서양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다면 동양엔 종묘가 있다고 힘주어 말하는 건축가도 있다. 더욱이 종묘에서는 해마다 500명의 제관들이 제례(祭禮)를 거행하고 있지 않은가.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추존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봉안한 사당이다. 유교를 나라의 중심사상으로 삼았던 조선은 신분과 상관없이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 4대에 걸쳐 제사를 모시는 것이 관습적이었다. 특히 왕실의 제례는 단순히 조상을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평안

과 풍년을 기원하는 중요한 의식이었다. 왕이 나라를 세우고 궁실(宮室)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묘와 사직(社稷)을 세워 조상의 은덕에 보답하며 경천애지사상(敬天愛地思想)을 만백성에게 널리 알리고, 천지신명에게 백성들의 생업인 농사가 잘되게 해 달라고 제사를 올렸던 것이다.

종묘제사에는 아무 짐승이나 올릴 수 없었다. 왼쪽 표(어깨 뒤 넓적다리 앞 살)에서 오른쪽 우(어깨죽지 앞 살)로 관통한 상살(上殺)만 올릴 수 있었다. 그보다 등급이 낮은 것이 오른쪽 귀 부근을 관통한 중살(中殺)로서 빈객(賓客) 접대에 사용했으며, 왼쪽 비(넓적다리 뼈)에서 오른쪽 연(어깨 뼈)을 관통한 하살(下殺)은 주방에서 사용했다.

종묘는 원래 정전을 말하며, 태묘(太廟)라고도 한다. 태묘는 태조의 묘(廟)가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1394년 10월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종묘 터를 결정하여 12월에 착공하여 1395년 9월 정전 7실(室)을 완공하여 개성으로부터 태조의 4대조인 목조(穆祖), 익조(翼祖), 도조(度祖), 환조(桓祖)의 신주를 모셨다.

이후 1398년에는 종묘 남쪽에 가산(假山)을 조성했고, 1406년 2월에는 재궁을, 1421년에는 영녕전(永寧殿) 4실을 건립하여 4조(四祖)를 건립하였다. 임진왜란 때 모두 소실되었지만, 1608년 광해군 때 중건하여 정전이 11실이 된 이후 시기를 거듭할수록 정전의 실(室)이 늘어났다.

일제치하였던 1928년에는 정전에 태조부터 순종까지 19실 49위(位)를 모셨고,

영녕전에는 목조부터 장조까지 15실 32위를 모셨다. 그리고 공신당(功臣堂)에는 태조부터 순종까지 83위의 공신을 배향(配享)했다.

종묘의 건물배치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넓은 대지의 남쪽 끝에 자리한 정문을 들어서면 정전에 이르는 주 도로가 왼 쪽인 서쪽으로 나고, 오른 쪽인 동쪽으로 굽어진 길옆에 향관청(享官廳)이 자리 잡고 있다.

향관청을 지나면 재실이 있는데, 이곳은 정문에서 정전에 이르는 주 도로에서 꺾어 들게 되어있다. 재실의 서쪽에 정전이 자리 잡고, 그 서쪽으로 영녕전이, 정전 서남쪽으로 악공청(樂工廳)이 있다. 정전이 자리한 곳은 장방형으로 담장을 둘러쌓았는데, 남쪽 담장 중앙에 정전 대문을 달고 양쪽 동서 담장에 측문을 달았다.

정문을 들어서면 넓은 월대가 있고 정문 중심과 이 월대의 중앙을 잇는 어도(御道)가 정전의 기단(基壇) 중앙 계단까지 연결되어 있다. 정문과 일직선으로 나있는 서쪽 길은 돌을 얹게 저

종묘의 정문인 창엽문(蒼葉門)은 조선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傳)이 지었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식민지시대 일본은 창엽문 앞길을 북돋워 계단을 물어버렸다. 지대가 낮아 가산(假山)까지 조성했던 이곳의 지대를 낮춘 것이다. 그 흔적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정전은 현재 정면 19칸, 측면 3칸이고, 좌우 익실(翼室) 각 3칸이지만, 본래 태실(太室) 7칸, 좌우 익실 각 2칸이었던 것을 여러 번 증축하였다.

단일 목조건물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긴 총 101m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민 박석이 깔려 있는 삼도(三道)인데 이는 종묘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길이다. 가운데 박석 길은 신이 다니는 신도(神道), 왼 쪽은 왕이, 오른 쪽 길은 세자가 다니는 길이라고 하는데, 삼도는 종묘가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계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표식인 것이다.

종묘의 정문인 창엽문(蒼葉門)은 조선건국의 주역 정도전(鄭道傳)이 지었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식민지시대 일본은 창엽문 앞길을 복돈위 계단을 묻어버렸다. 지대가 낮아 가산(假山)까지 조성했던 이곳의 지대를 낮춘 것이다. 그 흔적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정전은 현재 정면 19칸, 측면 3칸이고, 좌우 익실(翼室) 각 3칸이지만, 본래 태실(太室) 7칸, 좌우 익실 각 2칸이었던 것을 여러 번 증축하였다. 단일 목조건물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긴 총 101m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장대석으로 쌓은 넓은 월대를 앞에 두었는데, 윗면에는 박석(薄石)을 깔았고, 어도(御道)는 전(塼)을 깔았으며, 곳곳에 햇빛을 가리는 차일(遮日)고리가 박혀있다. 월대란 정전에서 신위를 모신 신실의 판문은 옆에서 비스듬히 보면 사이가 벌어져 있는데, 이것은 혼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일부러 문을 조금 틀어지게 만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혼이 자유롭게 드나들라는 취지의 양식은 정전과 영녕전의 신실 판문뿐만 아니라 창엽문, 정전의 남문과 영녕전의 남문 위의 창살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때문에 정전과 영녕전의 남문은 신이 다니는 문이라 하여 사람이 출입할 수 없어서 임금조차 동문으로 출입했다고 한다.

별묘(別廟)인 영녕전은 현재 보물 제821호로 정전에 비해 그 규모와 위엄성이 덜하다. 태조 이성계의 4대조를 포함하여 태종에게 정권을 이양한 정종(正宗), 세조에게 폐위당한 단종(端宗) 등 온갖 정권의 뒤안길을 살았던 왕들의 영혼이 모셔져 있다. 이 영녕전에서는 매년 춘추와 설달에 제향일을 따로 정하여 제례를 지냈다.

종묘는 정전과 영녕전 외에 왕이 제례를 준비하던 재궁(齋宮), 고려 공민왕의 신당, 악공들이 제례를 준비하던 악공청, 향관청(享官廳)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미켈란젤로는 “완벽이란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떼어낼 것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화려함이라고

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단색의 가칠단 청만으로도 위엄과 단아함을 지닌 종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오늘날 우리는 보수공사를 하다가 종묘의 박석을 부수었고,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 소홀히 하고 있다. 더욱이 주변 재개발로 인한 경관파괴로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종묘는 세계유산목록에 오른 10점의 우리 문화유산 중에서도 가장 이채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기(禮記)」의 다음 글은 우리가 종묘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가를 생각해 한다.

“예라고 하는 것은 근원으로 돌아가 옛것을 보존하며 자신을 존재하게끔 한 사람들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다.(禮也者 反本 脩古 不亡其初者也)”

오경후

문학박사,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책 수집가 안정웅의 오거지서(五車之書)

딱지본의 추억을 찾아서

모든 물자가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깊이 있는 책을 기대할 수 없고
그나마 마분지, 갠지로 된 책이라도
많이 있었으면 하는 심정이었다.
그중에서도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한 것은
일제시대에 발간되어 베스트셀러로
독서 대중화를 이끌었던 알록달록 표지의
딱지본의 재발간이었다.
우선 창작이 아니고 기존 책들을
재발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쉽게 발간할 수 있고
돈도 많이 안 든다는 이점이 대량 생산을 유발시켰다.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의 딱지본의 주된 독자가
아낙네들, 장사치, 일꾼 등의 서민층이었다.
이들은 딱지본을 통하여 삶의 활력으로 삼았다.
이런 맥락에서 딱지본의 재발간은
전쟁으로 상실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삶의 활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게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

금년은 6. 25 전쟁이 발발한 지 60주년을 맞이한 해
이다. 남북이 분단되어 반 세기가 넘어가고 그 고착
상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

그동안 막혔던 이산가족 상봉 재개 소식이 들려온다.
내 아내도 이산가족을 두고 있다.

장인 · 장모님께서 황해도 분으로 북에 가족을 남겨
두고 남으로 내려 오셨다.

지금은 80이 훨씬 넘으신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금강산 구경 갔다 오신 것으로
만족하신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다.

일전에 책 더미를 정리하다 겉표지가 촌스럽기는 하
지만 원색의 얇은 두께의 책이 눈에 들어왔다. 요즈
음은 헌 책방에서 보기가 힘든 책으로 내가 어렸을
때 집안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딱지본이었다.

“울긋불긋한 표지가 독자들의 호기심과 구매욕을 자
극한다. 호롱불 밑에서 목침을 베고 드러누워서 보기
에도 눈이 아프지 않을 만큼 큰 활자로 인쇄되어 호
감을 준다.

값이 싸서 농민과 노동자라도 한두 권쯤은 사 볼 수
있다. 문장이 쉽고 고성대독하기에 적당하다.”

식민 시기 문학평론가 팔봉 김기진이 이른바 ‘딱지
본 소설’을 두고 한 말이다. 나는 한국 전쟁 통에 태
어났다.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6. 25사변은 동족간의 상쟁
으로 세계전쟁사에 오를 정도로 인명피해는 물론, 참
혹하게 짝이 없었다.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전쟁은



종식되었으나 온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전쟁의 피해는 막심하였다. 국민들의 아픔과 슬픔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가족을 잃거나 헤어졌으며,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극도로 힘든 상태의 생활상이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등 경제규모는 아시아는 물론, 세계 최하위의 빈국이었다. 따라서 전후 복구는 엄두도 못 냈고 국민들의 의식주를 해외원조 등으로 해결해야만 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어렵고 취약했는데 문화 예술 쪽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중을 상대로 문화적으로 위안거리라고는 딱히 없었으나 그래도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책이었다.

모든 물자가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값이 있는 책을 기대할 수 없고, 그나마 마분지, 갱지로 된 책이라도 많이 있었으면 하는 심정이었다.

그중에서도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한 것은 일제시대에 발간되어 베스트셀러로 독서 대중화를 이끌었던 알록달록 표지의 딱지본의 재발간이었다.

우선 창작이 아니고 기존 책들을 재발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쉽게 발간할 수 있고 돈도 많이 안든다는 이점이 대량 생산을 유발시켰다.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의 딱지본의 주된 독자가 아나네들, 장사치, 일꾼 등의 서민층이었다. 이들은 딱지본을 통하여 삶의 활력소로 삼았다.

이런 맥락에서 딱지본의 재발간은 전쟁으로 상심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삶의 활력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전후 폭발적으로 간행된 딱지본은 도시의 노점거리나 시골의 장날 등에서 날개 돋힌듯 팔렸다.

어렸을 적 우리 집에도 장롱 속에 굴러다니는 책들을 볼 수 있었다. 장난감이 없었던 시절이라 장롱을 뒤져 어른들이 사용하는 코티본 냄새를 맡아보는 등 장롱을 뒤지며 노는 것이 큰 재미였다.



이때 김래성의 추리소설, 이광수의 〈흙〉, 〈무정〉 앞표지나 뒷표지가 뜯겨나간 딱지본 등의 책을 본 기억이 난다. 그런 기억 때문인지 나이 들어 내가 책을 수집할 때 딱지본도 수집품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책표지가 아이들이 갖고 놀던 딱지처럼 알록달록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딱지본은 18세기 전기부터 대략 20세기 초까지 서울, 전주, 안성 등지에서 간행된 방각본 소설이나 그 후의 창작 신소설 등을 신식 출판 인쇄로 대량 발간한 국문소설류까지 포함하여 통칭하는 말이다.

이와 같이 딱지본이라고 하면 대개 구활자본 고전소설과 신소설, 이 두 문학의 저작물을 뜻한다. 실제 세창서관에서 발행한 〈명사십리 明沙十里〉의 겉표지 제목 위에는 작은 글씨로 '古代小說'이라고 써 놓고, 함께 세창서관에서 발행한 〈방화수류정 訪花隨柳亭〉의 겉표지 제목 위에는 역시 작은 글씨로 '新小說'

이라고 구분해 놓았으며, 표지 그림 역시 소설의 제목을 금방이라도 떠올릴 수 있도록 작품의 내용과 부합하게 배경과 인물을 적당히 그려 넣고 있다. 이런 딱지본 출간이 가장 번성하던 때는 1915년경부터 1926년경까지의 불과 10년 내의 동안이었다. 딱지본은 그 후로 1970년대까지 전국 시장을 통하여 공급된 바 있다.

이야기책 한 권의 값이 6전으로 싸다고 해서 ‘육전소설’이라고 불린 딱지본 소설은 조선시대에 필사본과 목판본으로 전해 오던 고소설을 근대적인 납활자로 찍어낸 책으로 ‘울긋불긋한 표지에 4호 활자로 인쇄한 60여 페이지 안팎의 소설’이 전형적이었다. 지금까지 방각본으로 간행된 이야기책을 모두 합하면 근 25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낸 출판사만도 유일서관, 박문서관, 신문관, 신구서림, 회동서관, 조선서관, 영창서관, 세창서관 등 도합 60여 곳에 이르고 있다한다.

이중 서울지역에서 간행된 경판본(京板本)이 제일 많고, 다음이 완판본(完板本: 전주지역)이며 안성판(安城板)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1911년 이해조의 개작소설 〈옥중화〉를 필두로 해서 1930년까지 1천여 회나 간행되었으며, 특히 〈춘향전〉은 내용은 같지만 〈춘향전〉이라는 제목 외에 이해조가 개작한 〈옥중화〉를 비롯하여 〈옥중가인〉, 〈절대가인〉, 〈도상옥중화〉, 〈광한루〉등 제목을 달리하여 발간되는 등 1년에 40만부 가량 팔렸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딱지본이 우리사회에 남긴 가장 큰 효용가치는 이야기책 읽기를 통한 대중문화의 형성과 국문소설로 시작하여 일본이나 서구 작품의 번역, 번안을 통한 문화영역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존스럽기는 하지만 충천연색의 표지 딱지본. 이제는 우리문화의 한 콘텐츠로 다가오고 있다. 무궁무진한 이야기거리의 딱지본 소장본 중 몇 권을 소개한다.



김학공전(金鶴公傳)
세창서관(世昌書館) 1952

김학공의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박명석이라는 노비가 김학공 모자를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려는 음모를 꾸민다.

음모를 눈치 챈 유모가 이를 알리자 최부인은 아들에게 노비 전담문서를 가지고 숨어 있게 하고, 자신은 딸과 함께 피신한다.

노복들은 밤이 되기를 기다려 김학공 일가를 죽이려고 방에 침입하지만, 김학공의 피신으로 실패하자 불을 지르고 도망간다.

세월이 흘러 15세의 나이가 된 김학공은 노복들을 찾아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길을 떠나 김동지의 사위가 되며, 어느날 장인으로부터 박명석의 소식을 듣게 된다.

그러나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장모가 퍼트린 소문이 노복들의 귀에까지 들어가, 노복들은 다시 김학공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다.

김학공의 아내는 이 사실을 눈치 채고 남편 대신 남장을 하고 노비들의 손에 의해 수장된다. 죽음을 면한 김학공은 방황하다가 이승상의 눈에 띄어 사위가 된다.

그후 김학공은 과거에 급제하여 강주부사로 부임, 무사들을 데리고 노복들이 사는 곳으로 가 원수를 갚는다.

그리고 아내가 죽은 바다로 가 위령제를 지내자 아내가 다시 살아나 기쁜 해후를 한다.



어룡전(漁龍傳)
향민사 (1978)

다른 고전소설과는 달리 계모에 의해 내쫓긴 자식들이 후에 출세하여 가정의 비극을 해결하는 구성을 택하고 있다. 송나라 때 어부인이 아들 용과 딸 월 남매를 두고 죽자 어처시는 강씨를 첩으로 맞이들이지만 천성이 간악한 강씨는 어처사가 집을 비운 사이 용 남매를 내쫓는다.

방황하던 중에 용은 통천도사의 도움을 받아 도술과 무술을 공부하고, 월은 윤시랑의 양녀가 된다. 집으로 돌아온 어처시는 남매가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자식을 찾으러 길을 떠난다. 그동안 과년한 월은 형 주지방에 사는 임선과 결혼하고, 임선은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다.

홍노의 침공으로 나라가 어수선해지자 용은 통천도사의 명을 받고 전장으로 나선다. 홍노를 격퇴한 공적을 인정받은 용은 좌승상에 오르고, 여동생 월과 부친과 상봉하여 행복한 삶을 누린다.

유충렬전(劉忠烈傳)
세창서관(世昌書館) 1952

영웅소설의 주제가 다 그러하듯이 이 소설도 주인공의 영웅적인 활동과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다. 류충렬은 어린 나이에 부친이 간신의 참소로 유배당하자, 부친의 친구인 강승상에게 의탁한다.

강승상은 충렬의 비범함을 높이 사 자신의 딸과 혼례시킨다. 그러나 강승상 마저 유배를 당하자 충렬은 부인과 이별하고 광덕산에 들어가 도를 닦는다.

한편, 간신배 정한담이 호나라 왕과 밀통하여 천

자를 몰아내자 충렬은 하산하여 천자를 구출하고 유배 중인 부친과 강승상 등 일가를 모두 구하여 함께 부귀공명을 누린다.



김인향전(金仁香傳)
향민사 (1972)

〈김인향전〉은 계모가 전처 소생을 학대하는 계모형 가정소설로, 〈장화홍련전〉의 모방작으로 인정되고 있다. 흥미위주의 무비판적 답습이라는 의미에서 통속적 계승작으로 보기도 한다. 이 작품은 〈장화홍련전〉에 비해 봉건적 가치관이 크게 약화되어 있고, 문체도 신소설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후대의 저작으로 추정된다.

태종 때 평안도 안주성에 살던 좌수 김석곡(金石谷)의 후처정씨(鄭氏)는 전설소생의 아들 인형(仁亨)과 딸 인향(仁香)·인함(仁咸)을 몹시 구박한다. 자신의 소생을 갖게 되어 인향 남매를 아주 없애버릴 흉계를

품은 정씨는 간악한 노파의 꾀를 빌려 인향이 처녀의 몸으로 외간남자와 정을 통해 임신한 것으로 꾸민다. 이에 아버지는 분노하여 인형을 시켜 인향을 죽이게 한다. 인향은 못에 빠져 죽고 동생 인함도 뒤따라 목매어 죽는다.

두 딸을 잃은 아버지는 상심하여 죽고, 고아가 된 인향은 외가에 의탁한다. 한편 안주부사의 공청에 인향 자매의 원혼이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하나, 부사들은 계속 놀라 죽고, 마을에는 흉년이 들어 안주읍이 거의 폐읍이 될 지경이 된다.

이에 조정에서는 김두룡(金斗龍)을 부사로 보낸다. 그는 인향 자매의 원귀를 만나서 사실을 알아내어 정씨와 노파를 처형한 다음, 인향 형제의 위령제를 지내준다.

한편,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 인향의 약혼자 유성운(柳成允)이 인향의 몽중암시로 그녀의 무덤을 파고, 아직 썩지 않은 인향 자매의 시체에 영약을 뿌려 회생시킨다.

인향과 인향 자매가 다시 상봉하고 인향은 드디어 유성운과 혼인하여 부귀영화를 누린다.



강릉주월(江陵秋月)

세창서관(世昌書館) 1952

조선시대 중국 명나라의 소설 <소지현나삼복합(蘇知縣羅衫複合)>을 변안한 소운전(蘇雲傳)을 개작한 고전소설로, 소운의 형소위(蘇渭)가 도둑들에게 변을 당하여 죽은 뒤, 그의 유복자가 암행어사가 되어 원

수를 갚는다는 내용이다. 작가와 연대는 알 수 없다.



강명화의 애사(康明花의 哀死)

세창서관(世昌書館) 1952

1923년 6월15일자 동아일보에는 당대 최고의 명기 강명화(1900~1923)의 죽음을 애석해 하고 있다. 20세기가 여명을 알리는 1900년에 태어나 사랑하는 연인에게 온몸을 던져, 불같이 살다 23세의 꽃다운 나이에 독배 한잔으로 이승의 연을 끊은 서럽디 서러운 삶을 살다간 여인이다.

<강명화의 애사>는 실화소설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일으켰다. 강명화는 1900년 평양근교에서 김기덕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총명하였다.

그의 이름은 도천(道天)으로 그녀의 어머니 윤씨는 그녀의 외모와 재능을 알아채고 경성 기생학교에 보내게 되는데, 명화라는 기명을 얻은 그녀는 미모와 가무실력으로 단연 경성 최고의 기생이 된다.

그러나, 그녀는 장병천(張丙天)이라는 한 남자와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이 바뀌게 된다. 장병천은 대구의 백만장자 장길상의 외아들이었다.

장병천은 끈질긴 구애 끝에 강명화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강명화를 향한 장병천의 사랑은 집요하였다. 그러나 장병천의 아버지 장길상은 외아들이 화류계 여자와 놀아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둘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둘은 동경유학을 명목삼아 도피행각을 했고 그곳에

서 1년 반 남짓 꿈같은 유학생활을 보냈으나, 아버지
에 의해 두 사람은 고국으로 끌려와 서로 떨어지게
된다.

그녀는 연인의 앞길을 자신의 사랑이 가로 막는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죽음을 결심한다. 1923년 6월 독약
을 마시고 세상을 떠난다.

강명화가 죽은 후 장병천도 강명화와 합장해달라
는 말을 남기고, 1923년 10월 극약을 먹고 생을 마
감한다.



오성과 한음(鰲城과 漢陰)
세창서관(世昌書館) 1952

오성은 농담의 천재 장난의 괴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
고, 한음은 할 말만하고 안할 말은 손톱만큼도 안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한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만난 것이 아니고 오성이 23세 때
18세의 한음을 만났다. 오성은 한음을 만나 매우 기뻐
했고 급속히 가까워졌다.

오성이 먼저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한음까지 과거에 합격함으로써 두 사람은 더욱더 사
이가 돈독해졌다.

한음이 쓴 글을 모아둔 〈한음문고〉에는 그가 쓴 110여
통의 편지들이 남아 있는데 그중 77통이 오성에게 보
낸 것이었다. 한음이 얼마나 오성을 의지 했는지 알 수
있는 일이다.

〈오성과 한음〉은 조선 선조 때 명신인 오성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의 실존 이야기로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
에서 떠나 둘이서 격이 없이 지내면서 남긴 일화를 기
술한 것으로 기지와 해학을 통하여 인간의 약점과 인
간의 본성을 신선하게 조명한 우리의 귀중한 해학 문
학이다.



원두표실기(元斗杓實記)
세창서관(世昌書館) 1952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한 궁녀가 인조를 모시고 남한
산성으로 피난할 때의 시말을 적어놓은 일기체 수필
산성일기(山城日記)에 “북문대장(北門大將) 원두표
가 적군을 맞아 쳐 나가서 싸워 도적 여섯 명을 죽
이다.” 라는 기록이 있다.

원두표는 강원도 원주시사람으로 수사 원유남(水使 元
裕男)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뜻이 크고
의협심과 힘이 강대한 쾌남아였다.

원두표실기는 원두표의 성장시기와 관직의 길에 들
어 선조, 광해군을 거쳐 인조반정에 참여하고 인조,
효종 등 4명의 임금을 모시면서 우의정, 좌의정까
지 이르는 시기까지의 그의 용감무쌍한 무용담을
담았다.



안정웅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세상은 바뀌었다.

여성의 참정권이 회복되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정에서 남존여비를 고집하는 남성이 있다면

그는 더 이상 남편으로, 아버지로 존중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예견대로 21세기 지구촌은 '가정의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는 가정의 문화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도 IMF 이후 이혼율이 급증했다.

이제 서양의 이혼율은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다. 굳이 통계수치를 논하지 않아도 피부로 느낀다. 한 가정의 붕괴는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문제요, 국가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에는 체력이 국력이라고 했다. 그러나 요즘은 가정의 행복이 국력이다.

그 중심에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요즘 부쩍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말을 자주 접한다. 변해야 하는 건 맞다. 다른 건 다 변하고 있는데 아버지만 구태의연한 과거의 사고에 매여 있을 수는 없다. 변화는 성장을 의미한다. 변하지 않고는 급변하는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없다.

그래서 가정 행복의 중심에 있는 아버지도 변화되는 것이 맞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문제는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버나드 쇼는 "아버이는 중요한 직업의 하나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부모도 아이들을 위해 적성검사를 한 적이 없다"고 안타까워한다.

과거 우리는 남성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였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곧, 남편의 권위요, 남성의 권위로 이어졌다. 아버지의 기분이 그날의 가정의 분위기였다. 남편은 하늘이었다. 남존여비사상을 당연하게 받아드렸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었다. 여성의 참정권이 회복되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정에서 남존여비를 고집하는 남성이

있다면 그는 더 이상 남편으로, 아버지로 존중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다.

법원 상담현장에서 보면 나이드는 부부들의 상담 건수가 예전과 달리 많아졌다. 황혼 이혼율이 늘고 있다는 증거다. 세상은 변했지만 나이드는 부부들의 가정의 문화는 남존여비사상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그전과 같이 맹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무조건 참고 살아야 된다는 할머니, 어머니 세대는 지났다.

한번은 50대 후반의 부부 이혼상담을 했다. 아내는 완고했다. 반면, 남편은 용서를 구하며 이혼을 철회해 줄 것을 울면서 매달렸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니 왜 이토록 완고하게 이혼을 원하는지 알았다. 납득이 갔다. 첫 아이 출산 이후로 세 번씩이나 외도와 여자문제가 끊이지 않았단다. 그때마다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뒷수습을 다해 주었다. 남편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의 부러움을 샀다.

아내를 잘 얻었다고. 그러나 그때마다 아내는 가슴에 한이 맺혔고, 아이들이 크기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제 자녀들을 다 출가시켰으니 가슴에 묻어둔 일을 끝맺고 싶다는 말이었다. 더 이상 부당하게 희생하며 살 수 없다는 말이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이 간다. 왜 아니겠는가? 가슴에 한을 품고 산다는 게 편했겠는가?

문제는 세상은 변했지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남성위주의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지금도 가정의 풍토를 들여다보면 아니 그 가정의 풍토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패덕이나 행동까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잔재가 남아 있음을 본다.



일본 속담에 “자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이는 ‘지금의 나’라는 사람의 행동패턴이나 성격형성에 가문의 가정문화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성격검사가 있지만 그 중에 Ego-gram검사(교류분석 성격검사)를 해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가정의 문화는 세습된다.

지금도 우리 세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윗세대의 영향력 아래 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영향력은 대를 이어 물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나쁜 영향력은 우리 대에서 끊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내 아버지도 피해자다. 사랑할 줄 모른다.

사랑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사랑이라는 유전자는 후천성이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다.

한번은 한 아버지가 자신이 얼마나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적인지 아느냐고 항변했다. 내용은 이렇다. 자신은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먹는 거, 입는 거에 한이 맺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담에 결혼해서 자식을 나오면 내가 받지 못한 혜택을 전부 누리게 해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차도 샀다.

그리고 주말이면 전국에 있는 맛 집은 다 찾아다녔고 좋은 곳은 다 찾아서 누리게 했다는 것이다.

남자는 고집이 세다. 지적 받는 것을 싫어한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배워야하느냐고 생각한다.
난 그런대로 잘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잘하는 아버지일 수 있다.
문제는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뿌리 내려진
우리의 행동패턴을 알고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변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아내에게만 맡겨두고 바깥 일만 하던 시대는 지났다.
아버지 부재현상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면에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말도
귀담아 새겨야 한다.

그런데 자식들로부터 돌아온 것은 원망이라는 것
이다. 왜 내가 자식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원망을 받아야 되었느냐고 항변을 하셨다. 문제는
이렇다.

자녀들의 생각이나 아내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위주로 결정했다는 데 있다. 상대를 배려하
지 않는 사랑은 독이 될 수 있다. 자기 위주로 베푸
는 사랑은 타인에게 고통이 된다.

우리는 가시고기의 부성애를 안다. 새끼를 위해
자신의 몸을 먹이로 내어주고 죽음을 선택하는 가
시고기를 보면 눈물이 난다. 특히 자신이 불효자
라고 생각하는 자식은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
키는 이런 장면을 보면 더 눈물을 흘린다. 왜 그렇
습니까?

자신도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깐 부모의 마음을 알
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전에는 몰랐던 부모의 사
랑이 가슴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람은 동물과 같지 않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주
어도 감정이 꼬이면 사랑으로 느끼지 못한다. 지
금은 우리나라도 경제지수가 행복의 척도이던 시
대는 지났다.

경제지수보다 애정지수가 높아야 행복한 시대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경제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애

정지수도 높여주어야 한다. 밥만 먹고 사는 시대
는 지났다. 절대 배부른 소리가 아니다. 가족이 함
께 있음을 느끼며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
이 채워져야 행복감을 느낀다.

남자는 고집이 세다. 지적 받는 것을 싫어한다. 내
가 뭐가 부족해서 배워야하느냐고 생각한다. 난
그런대로 잘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잘하는 아버
지일 수 있다.

문제는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뿌리 내려진 우리
의 행동패턴을 알고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변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아내에게만 맡겨두고 바깥 일만 하던 시대는 지났
다. 아버지 부재현상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런 면에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말도
귀담아 새겨야 한다.

아버지를 아버지 자리에 올려놓는 것도 아버지들
만의 몫은 아니다. 지혜로운 아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변해야 산다. 아버지들이여! 우리 가정
을 위한 변화를 시도해 보지 않았는가?

정선경

희망찬 교회 담임목사

(사)두란노아버지학교 주강사

서울보훈병원 호스피스 전문위원





아버지

부모와 자식은 영원한 그들이 된다.

‘아버지’라는 낱말은 ‘자식’이라는 낱말과 대칭된다.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다고 말할 수 있고 아버지를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자식과 연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부자일체(父子一體)라는 말이 떠오른다. 이 말은 부모와 자녀는 한 몸이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긴밀한 관계라는 말이다. 생물학적 유전학적 관계로 보아도 자식은 부모로부터 출생하였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고 부모가 갖은 고생을 다하고 때로는 위험한 일을 무릅쓰고 굶주리면서도 일하는 것은 자식을 기르기 위한 것이며, 자식이 부모의 뜻을 받들고 섬기는 것은 부자일체라는 관계를 말해준다.

전통윤리에서는 이러한 부자관계를 중시하여 ‘부자자효’(父慈子孝)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이다. 그 자식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자신의 분신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바친다. 문인들은 이러한 관계를 시나 수필이나 소설로 표현한다. 어떤 소설가는 부모의 희생을 ‘가시고기’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가시고기는 새끼의 부화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입속에 보호하기도 하고 독립된 개체가 되어 활동하기까지 오랫동안 굶으면서 새끼를 지키다가 지쳐서 죽은 후에는 새끼들로 하여금 자신의 몸을 파먹고 자라게 한다. 가시고기 외에도 자신의 몸을 새끼에게 바치는 동식물은 얼마든지 있다. 부모는 자신의 몸을 먹이로 제공하지는 않지만 모든 마음과 정력을 자식을 위해 바친다.

〈성경〉에는 탕자를 반기는 아버지 이야기가 있다. 작은 아들이 제 뿔을 챙겨서 객지로 나가 함부로 탕진하고 굶어죽게 되어 집으로 돌아가니 아버지가 반가이 맞아들여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 큰 아들이 밭에서 돌아와 불평을 늘어놓자 아버지는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난 것이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식’이라고 작은 아들을 옹호하고 큰 아들을 달래는 내용이다(누가복음 15:11-32절). 제멋대로 방탕하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온 자식이라도 너그러운 용서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자식은 이러한 부모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며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계승한다. 효(孝)라는 한자(漢字)는 본디 부모(늙은이: 老)를 자식이 계승한다(子承老也)는 뜻이라고 한다. 생물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 계승하는 동시에 윤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계승하는 것이다. 상제례(喪祭禮)의 축문에서 쓰는 ‘효자’라는 말은 부모를 계승한 자식이라는 뜻이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그늘이 된다’(父子相隱)는 말도 있다. 섬공(葉公)이 공자(孔子)에게 자기마음

의 직자(直者)는 그 아버지가 남의 양을 주워 온 사실을 가지고 관헌에 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공자가 사는 마을의 직자는 그와 달리 아버지가 자식의 그늘이 되고(父爲子隱) 자식이 아버지의 그늘이 된다(子爲父隱)고 하면서 정직이라는 것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논어〉자로편 참조).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그 잘못을 서로 감추어 줄지언정 관청에 고발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곧, 정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특수한 인륜에 따라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허용되지 못하는 특수한 윤리와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전통윤리에서 말한 부자관계는 군신의 관계보다도 우선하는 것이며 부자관계가 원만한 이후에 비로소 군신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다(父子有親而後 君臣有正)고 한다. 부자관계는 혈통으로 맺어진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군신관계는 의리(義理)로 맺어진 관계이다. 따라서 군신관계는 인위적으로 분리 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인위적으로 분리될 수가 없다.

전통사회는 모든 국가가 군주정치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군신관계로 표현 되었지만 오늘날의 현대국가에서는 군주가 존재하더라도 명목상의 군주에 지나지 않고 민주주의 사회와 국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종전의 군신관계는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과 국가와의 윤리 이전에 가정에서 이루어진 부자유친의 윤리가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론적인 이론은 그 상황에 따라서 역동성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된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중국 고대의 순임금이 부모의 허락 없이 혼인한 것(不告而娶)이나 임신왜란 당시의 동래부사(東萊府使) 송상현(宋象賢)의 순절이다. 순임금은 그 아버지 고수(瞽叟)가 너무나 완악하여 자식(순임금)을 죽이려고 하는 까닭에 혼인의 승낙을 기다릴 수가 없었다.

송상현은 일찍이 국란을 당하여 동래성을 사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군신의중 부모은경(君臣義重 父母恩輕)이라는 글을 남기고 휘하의 장병들과 함께 순절함으로써 국가의 존망이 백척간두에 있는 순간에 택할 수밖에 없는 공직자의 사명을 수행한 훌륭한 본보기를 보였다.

자식은 부모가 계실 때는 그 뜻을 잘 살피야 하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행적을 잘 살피서 부모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것이 효도의 실천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부모의 지행(志行)만을 맹종할 수 없는 것이 인간사이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은 항상 변화하며, 인간의 지식은 새로워지고 과학과 산업과 문화는 발달하고 인간의 가치관은 변화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또한 자녀는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얻게 되고 부모보다도 훨씬 유능하고 지혜로운 인격을 갖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식이 부모보다 훨씬 총명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위에 대하여 간쟁(諫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증자(曾子)와 공자(孔子)는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다.

“자식이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함을 효도라고 할 수 있나이까?”

“그것이 웬 말이냐? 그것이 웬 말이냐?... 옛날 천자에게 쟁신(爭臣) 일곱이 있으면 비록 무도하더라도 그 천하를 잃지 아니하고...아버지에게 쟁자(爭子)가 있으면 몸이 불의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의를 당해서는 직언을 해야 하는 것이니

아버지의 명령을 복종하는 것이 어찌 효도가 되리오?” (〈효경〉간쟁편 참조).

천자나 제후나 대부나 선비나 아버지나 모두 쟁신과 쟁우와 쟁자가 필요하고 그들의 간쟁으로 인하여 실수하지 않고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자자효의 참뜻을 알 수 있다. 아버지도 사람인 까닭에 천리(天理)를 벗어나 인욕(人慾)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평상시의 복종으로 효도의 참된 의미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간쟁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성경적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하여 상세히 밝히고 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생활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고, 징계해야하고, 효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인데 징계하는 것, 이를테면 회초리로 때리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잠언13:24)이라고 하였다. 다만 회초리를 들 때는 반드시 준비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자식에게 알리고 자식의 동의를 구하고, 분노나 즉흥적인 감정을 버리고, 사랑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은누리가정사역상담연구원 푸른 바다 집필 참조)

한국사회의 변화는 매우 급속히 이루어져 압축성장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서구에서 수 백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에 걸쳐 발전한 문화를 수십 년 동안에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혼돈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오늘날 한국의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전통적인 가부장의 위치를 벗어나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속에서 심신의 고통을 감내하며 가정을 위하여 일한다. 아버지들은 전통사회에서 누렸던 권위도 없고 존경도 받지 못하는 수가 많다. 아버지에게 대한 자식들의 존경심은 희박해지고 자식이 아버

지를 닮고 싶은 역할모범(role model)으로 삼지도 않는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것은 곧 존경할만한 모범(typical model)이 적은 데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청소년의 범죄와 비행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부모의 행동이 부도덕하거나 자식에 대한 훈육방법이 좋지 않거나 무관심한 경우에는 ‘부모부재현상’과 다를 바 없으며, 만일 너무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거나 체벌을 받고 자라는 청소년은 주체성과 창의성이 부족하고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거만한 성격을 지니기 쉽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모순과 부도덕과 타락은 많은 아버지들의 행동에 말미암아 나타나고 그것이 곧 청소년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모방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이리하여 아버지의 바람직한 역할은 가정의 차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한 까닭에 ‘좋은 아버지 캠페인’이나 ‘나쁜 아버지 퇴치 캠페인’이 널리 전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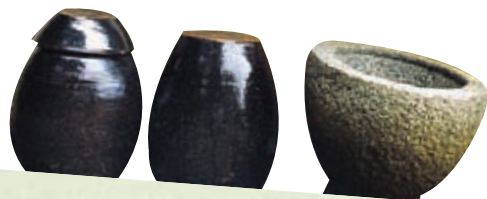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를 잘 지키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행동적으로 결단해야 한다.

지교현 철학박사,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인식의 전환 '가족',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소고



남편의 애창곡 '홍하의 골짜기'와
 '꽃반지 끼고'를 너댓 번이나 들은 것 같다.
 청하고 청해도 싫다 소리 앓고 부르는 남편은
 우리 집의 마스코트다. 그리고 웃음 제조기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웃는 건
 순전히 남편 덕분이다.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런 것 같다.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그늘이 되는, 큰 산 같은 존재.

해외근무를 하고 있는 동생이 4개월 만에 휴가를
 얻어 귀국했고, 마침 친정아버지의 기일이어서,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 나들이를 하기로 했
 다.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지칠 만도 한데, 온 식
 구가 모처럼 나들이를 하는 게 좋아서 그런지 저
 녁이 되니 오히려 더 생생해졌다. 아이들이 성인
 이 되니 네 식구가 시간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은
 게 요즘 생활이다.

광주 즈음 지나다보니 벌써 어둠이 몰려온다. 라
 이트를 켜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다. 아이들과
 남편은 노래를 부르고 장난을 치며 웃음을 터뜨린
 다. 9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은 지적 수준
 이 세 살 정도의 어린애가 되었다. 왼쪽 편마비를
 동반하여 보행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남편의 발
 병으로 우리 가족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컸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왔나 생각하면, 그
 래도 그 중심에 아이들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
 에 가능했던 것 같다.

아이들의 우스개 소리에 남편이 자꾸 웃었다. 우
 리들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감정을 표현하는 게 신
 기해서 우리는 더 많이 웃었다. 누구 말처럼 행복
 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걸 우리는 늘 체험하며 산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



을 하는 아이들에게 고마울 따름이다. 남편의 애
 창곡 '홍하의 골짜기'와 '꽃반지 끼고'를 너댓 번
 이나 들은 것 같다. 청하고 청해도 싫다 소리 앓고
 부르는 남편은 우리 집의 마스코트다. 그리고 웃
 음 제조기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웃는 건 순전히
 남편 덕분이다.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런
 것 같다.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곁에 있다는 것
 만으로도 힘이 되고 그늘이 되는, 큰 산 같은 존재.
 두어 시간 걸려 친정에 도착했다. 마당에 들어서
 자마자 하늘을 보며 딸애가 외친다. 우와! 별 줘
 봐!라며. 우리는 그 말에 저절로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다. 쏟아져 내릴 듯 영롱한 별들이 밤하늘에
 가득하다. 카시오페아와 북두칠성을 참으로 오랜
 만에 본 듯하다. 밤하늘을 쳐다보는 우리 식구들
 을 보고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셨다.

어머니는 늘 별을 보고 사시니 모를 것이다. 풀벌
 레소리와 소슬한 바람과 저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아름답게 어우러지는지를, 아니 느끼며 살만큼 어
 머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게다. 고물고물 어
 린 우리 삼남매를 키우고 가르치기 급급하셨을 테
 니까.

음력 구월 초하루는 아버지 제삿날이다. 아버지는
 49년 전 서른한 살의 푸르고 젊은 나이에 스물일
 곱 살의 꽃 같은 아내와 유복자까지 세 아이를 남



기고 돌아가셨다. 그때 나는 다섯 살이었다. 만이
인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동생
들은 더 할 것이다. 아버지께 대한 기억은 두 가지
다. 아버지를 태운 상여가 태령산으로 올라가는
걸, 할머니의 등에 업혀 훌쩍거리며 쳐다본 기억
과 안방 뒷문 쪽에서 발에 약을 바르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실루엣처럼 남아있을 뿐이다.

그 두 기억만으로 내가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하고
느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그럴까. 내 유
년과 그 이후 결혼하기까지, 나는 참 외롭고 힘들
었다. 더구나 철이 들면서부터는 어머니와 동생들
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당찮은 장녀의식 때문에 늘
어깨가 무겁고 힘겨워 휘청거렸다.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막내 여동생이 오늘
따라 부쩍 가엾어 보인다. 비쩍 마른 여동생은 목
이 유난히 길다. 여동생을 쳐다보던 나와 남동생
의 시선이 부딪쳤다. 남동생이 살짝 미소를 짓는
다. 여동생을 보는 나와 남동생의 마음이 일치했
으리라. 안쓰러운 마음 말이다. 여동생에 대한 우
리의 마음은 조금은 빳진 자 같은 심정이다. 우리
만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에 대한.

아버지의 삼우제를 지내고 그 날 밤에 태어난 여
동생, 그 여동생이 태어나던 날 밤의 풍경이 나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아기 울음소리에
깨어보니 아랫목에 얼굴이 빨간 아기가 이불에 쌓
여 있었다. 어머니는 아기를 보며 자꾸 울었다. 할
머니가 어머니를 달래고, 삼촌은 윗방 문을 열고
묵묵히 안방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무도
내가 댄 것을 알지 못하는 듯 했다. 나는 다시 가만
히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어머니는 계속 훌쩍거리며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에 본 어머니의 눈은 뜰 수 없을 정도로 통통 부어
있었다. 여동생을 볼 때면 빨강고 조그만 아기얼
굴이 겹쳐진다. 그리고 그 날 밤의 기막힌 풍경도.
그래서 여동생을 보면 그저 가슴이 아릿아릿해지
나보다. 사는 게 바빠 언니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미안한 마음과 함께.

아버지가 부재한 내 유년기와 청소년기는 늘 고단
하고 무거웠으며 기댈 언덕이 없다는 상실감에 암
울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는 친구들을 속으로
무척 부러워했고, 결혼은 꼭 시아버지가 계신 가
정으로 출가하리라 생각할 정도였다. 아버지의 빈
자리까지 채워주기 위해 수고한 어머니의 노고와
사랑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까. 그런데도 나는 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외롭고 고독했으며, 불행하
다고 생각하며 자랐다. 내 앞에 닥치는 술한 문제

아버지가 부재한 내 유년기와 청소년기는
 늘 고단하고 무거웠으며
 기댈 언덕이 없다는 상실감에 암울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는 친구들을 속으로 무척 부러워했고,
 결혼은 꼭 시아버지가 계신 가정으로 출가하리라
 생각할 정도였다.
 아버지의 빈 자리까지 채워주기 위해
 수고한 어머니의 노고와 사랑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까.
 그런데도 나는 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외롭고 고독했으며,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자랐다.
 내 앞에 닥치는 술한 문제들을 힘겹게 해결해 나가면서,
 아버지의 그늘에 있는 다른 딸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다.



들을 힘겹게 해결해 나가면서, 아버지의 그늘에
 있는 다른 딸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다.
 제사가 끝난 깊은 밤, 동생들은 모두 각자의 집으
 로 돌아가고, 뒷방에는 남편을 가운데 누고 아들
 과 딸이 양쪽에 누웠다. 잠들기 전까지 무슨 이야
 긴지 두런거렸다. 가끔 쿵쿵 웃는 소리로 났다. 나
 는 어머니와 함께 안방에 자리를 펴고 누웠다. 바
 뻐던 하루 동안의 일로 몸이 피곤했다. 그런데도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 갈 수록 풀벌레 소
 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다. 불을 끄니 방안이 칠흑
 같이 캄캄했다.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실까. 아
 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생각은 어떠할까. 설핏 잠
 이 들었을까 말까, 어머니가 내 손을 가만히 잡았
 다. 뻣뻣한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다. 저 손으로 우
 리를 키우고 가르쳤다고 생각하니 더 따뜻하게 느
 껴졌다. 다음날 일찍 출발해야 하지만 그 밤에 남
 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적거리다 모두
 가고 나면 참 쓸쓸하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남은 것인데 말이다. 더 자주 와서
 어머니 곁에서 자야겠다는 결심을 하지만 그게 쉽
 지만은 앓을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아는 나다. 그래
 서 더욱 어머니의 손을 꼬옥 쥐었다. 어머니도 내
 손을 또 꼬옥 쥐었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비었던 크고 행한 자리는
 결혼과 함께 어느 정도 채워졌다. 그러나 여전히
 그 상실의 흔적은 남아있고, 나이가 들 수록 아버
 지의 부재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다른 것은 다 차
 치하고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기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왜 아직도 남아서 불쑥 불
 쑥 고개를 내미는 지 모르겠다. 그것 때문일까. 남
 편이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저렇게 아이들 곁에서
 아버지라 불리며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아버지'
 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봇대가
 그대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을 다하는 것
 처럼.....

生活禮節

생활예절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 원장

자기관리 · 개인예절 (1)

1. 마음가짐

가. 자기관리의 의미 | 선비가 되려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한다. 사회생활이란 혼자 살지 않고 남과 어울려 사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바로 대인관계가 있다는 말이다. 대인관계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당사자가 먼저 사람다워 져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까닭으로 예절은 사람으로서의 자기관리(自己管理)와 사회인으로서의 대인관계(對人關係)를 원만히 하기 위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려는 개인예절은 사회생활의 개체들이 자기를 바르게 하는 예절을 의미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절은 남에게 행하기에 앞서 정성스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예스럽게 갖는 것이 앞서야 하고, 그렇게 하자면 자기관리로서의 개인예절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혼자 하는 예절이다.

위에서 말한 자기관리의 요체를 한 마디로 말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다움을 예로부터 참사람, 군자(君子)라 하였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선비라 한다. 선비다움을 지니는 데(선비가 되려면)는 다음 3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① 인격자(人格者)가 되어야 한다. 인격이란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인격자란 지위나 권세의 높고 낮음, 재물의 많고 적음, 학식이 많거나 무식함 등이 전혀 상관없다. 누구든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면 그 사람이 인격자인 것이다.

② 아는 대로 실천해야 한다(學而時習之, 배우고 실천한다).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옛 글에도 “행(실천)하고 남는 힘이 있으면 배운다(行有餘力則以學文).” 고 했다. 실천해야 비로소 배워서 아는 것이 참 힘이 되는 것이다.

③ 남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 독불장군으로 자기 혼자서만 살려고 하면 안 된다.(克己復禮爲仁) 이기심을 억제하고 예절을 실천하면 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사람으로서의 자기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할 것이다.

나. 마음가짐과 표정

예절은 안과 밖의 측면이 있다. 예절은 자기의 안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작용하는 대내대자적(對內對自的)인 면과 밖에 있으면서 남에게 활용되는 대외 대타적(對外對他的)인 면이 있다. 완벽한 예절이 되려면 안에서 작용하는 예의 정신과 밖에서 활용되는 예절언동(言動)이 일치 되어야 한다.

마음속에는 예스러움이 가득하지만 말과 행동이 예스럽지 못하면 남이 인정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말과 행동만 번지르하게 하면 위선 이랄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으로 동양의 성인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예는 문이다(禮門也)”라고 했다.

문이 없으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것과 같이 안에 있는 예의 마음과 밖에 있는 예의 행동이 문을 통해서 드나들며 한결같아야 한다는 말이다. 동양의 고전인 대학(大學)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는다(正心修身)” 고 한 것에 유의할 것이다.

1) 마음가짐

마음은 예절의 뿌리이며 샘이다. 예스런 마음을 가지면 말과 행동이 예스럽고, 마음이 고약하고 무례하면 그 말과 행동이 무례해진다. 그러므로 예스러운 사람은 그 마음을 예스럽게 갖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는다.

①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 동양의 정신사상은 ‘우리(仁)’에서 출발하는데, ‘우리(仁)’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우리(仁)가 바로 한국인 정신 ‘우리’이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남과 어울려 우리로 사는 것인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어울릴 수가 없다. 사랑이란 인간이 공존하는 슬기로서 ‘인재(仁慈)’라고도 한다.

② 너그럽게 수용하는 마음을 갖는다. 너그러운 마음은 바다같이 깊고 하늘같이 넓은 것이다. 용서하고 이해하며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너그러움 앞에서는 뽐족하고 모난 것도 날카로움을 잃게 마련이다.

③ 공경하고 귀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예절을 실천하는 데는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귀여워하는 것이 시작이랄 수 있다.

항상 공경하고 귀여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밖으로 드러내는 공경과 귀여움이 참되게 나

타나는 것이다.

④ 조심하고 삼가는 마음을 갖는다. 평소의 마음가짐이 조심스럽고 삼가는 자세로 확립 되어야 실수가 없고 하는 일이 진중하다. 매사를 깊이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삼가면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스럽게 될 것이다.

⑤ 분수를 알아 사양하는 마음을 갖는다. 사람은 의식주(衣食住)가 해결되어야 살 수 있고, 입고 먹고 거처하는 것들은 물질이고, 물질을 가지려는 욕심은 만족을 모른다. 있는 물질을 다 가지려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공존하지 못한다.

자기가 누릴 수 없는 소유는 가치가 없으므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공존하지 못한다. 자기가 누릴 수 없는 소유는 가치가 없으므로 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사양하는 마음이 예절의 시작이다.

⑥ 잘잘못을 가려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사람은 타율(他律)을 혐오하고 자율(自律)을 선호한다. 자율하려면 스스로의 행위가 잘못되었을 때 부끄러워 할 줄을 알아야 한다. 부끄러움을 알아 자율하는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다.

⑦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인간을 가장 값지고 돋보이게 한다. 항상 감사하며 자기에게는 분에 넘친다는 고마움을 가져야 마음이 넉넉해진다.

⑧ 모든 것을 긍정하고 믿는 마음을 갖는다. 남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갑절의 수고를 해야 산다.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마음이 있어야 사물에 대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힘이 생긴다. “그렇지 않다”, “거짓말이다” 하는 관점에서 뒤집고 부정하는 습성은 자기 스스로를 왜곡시킨다.

⑨ 바른 예절을 행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갖는다. 예절은 관행성 사회계약적 생활규범이고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자기관리와 사회인으로서의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예스러움이란 사람다움이며 사람노릇이며 사람의 행동이다. 그 예스러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하는 말과 행동이 자연히 예스러워질 것이다.

2) 표정(表情)

전향에서 언급한 마음가짐이 얼굴에 나타나면 그것을 표정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정은 마음의 창(窓)이며 심성(心性)의 분화구라고도 한다.

깊이가 없는 사람의 표정은 상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므로 표정을 그 사람이 처한 사정이나 환경의 거울이라고 한다.

하는 일이 잘 되어가는 사람은 표정이 밝고 윤택이 나지만 일이 꼬여서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표정이 어둡고 까칠해지는 까닭은 표정이 거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일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소위 관용찰색(觀容察色)이라고 해서 관상(觀相)을 보고 그 사람을 점친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 사람을 알려면 표정을 보라.”

“사원을 채용하는 데 관상(얼굴)을 본다.”

이런 말들이 역겹지 않고 긍정적으로 들리며, 또 그렇게 하는 까닭에서 표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다. 표정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나타내는 첫 단계이다. 상대는 나의 표정을 보고 나를 읽게 된다. 그러므로 원만한 대인관계는 예스러운 표정을 짓는 데서 출발한다 하겠다.

① 얼굴 전체를 부드럽고 구기지 않게 갖는다. 온화한 표정은 상대를 안심시켜 포근히 감싸고, 활짝 편 얼굴은 그들이 드리워지지 않아 깨끗한 인상을 준다.

② 얼굴의 근육을 긴장시키지 않고 곱게 갖는다. 성난 얼굴은 긴장되어 딱딱해져서 상대를 겁나게 하고, 안색이 곱지 못하면 독한 인상을 풍긴다.

③ 얼굴, 특히 양미간(눈 사이)을 찌푸리지 않는다. 양미간을 찌푸려 버릇하면 세로로 주름이 잡히고 신경질적인 인상을 준다. 상대가 안심하고 접근하게 하려면 양미간을 펴서 밝게 해야 한다.

④ 눈을 단정하게 뜨고 평온한 시선으로 정면을 바라본다. 눈을 치뜨거나 결눈질 또는 불안한 눈초리는 상대방이 경계한다. 정면으로 보지 않고 결눈질을 하면 마음이 사악해 보이고, 치뜨는 눈가짐은 억눌려 사는 사람같이 보인다.

시력이 좋지 못한 사람은 눈을 치뜨는 버릇이 생긴다. 시력을 교정하는 안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입은 조용히 다문다. 입을 힘주어 다물면 단호하고 아귀찬 인상을 풍기며, 더러는 억지로 표정을 짓는 것같이 보인다. 입을 헤벌리면 단정하지 못하고 허술하게 보인다.

⑥ 턱을 자연스럽고 반듯하게 한다. 턱을 일부러 끌어들이면 볼에 주름이 저서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의도적인 표정 같고, 턱을 앞으로 쳐들면 건방지게 보인다.

⑦ 억지 표정을 짓지 않는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정만 보기 좋게 가지려면 금방 드러난다. 표정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그 표정이 참된 표정이다. 얼굴은 온화하면서도 그 말이 거칠면 옳지 못하다.

⑧ 경우에 맞는 표정을 갖는다. 잔치에 가서는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하고, 상가에 가서는 슬픈 표정을 짓고, 아픈 사람을 보면 측은한 표정을 지으며, 딱한 장면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표정을 가져야 한다.

⑨ 얼굴색으로 가슴 속을 보이며 눈빛으로 말을 한다. 가슴 속에 품은 감정과 얼굴색이 일치해야 정직한 사람이고, 눈빛이 맑고 곧아야 참스러운 사람이다. 때문에 표정은 과장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본심을 숨기려고 조작해도 아니 된다.

3) 고전(古典)의 구사(九思)

구사'란 "아홉 가지 생각할 일"이란 뜻으로 동양의 성인 공자(孔子)의 말과 행적을 적어 놓은 고전인 논어(論語)의 계씨편(季氏篇)에 "공자께서 '군자에게는 아홉 가지 생각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였으며, 소학(小學)에서 사람의 행실을 가르치는 데 마음가짐의 요령으로 제시되었고, 우리나라의 명현(名賢)이신 율곡 이이(栗谷 李珣)선생이 1578년 42세 때에 공부하는 요령을 가르치기 위해 도학입문서(道學入門書)로 저술한 격몽요결 지신장(擊蒙要訣 持身章)에도 인용된 것이다.

이 구사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마음가짐에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배려했는지를 음미하고 현대를 사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① 시 사명(視思明): 눈으로 볼 때는 밝게, 바르고 옳게 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편견을 가지고 밖에 나타나는 것만을 보지 말고 깊이 있게 보라는 뜻이다.

② 청 사충(聽思聰): 귀로 들을 때는 무엇이든지 밝게 지혜를 기울여 진정한 것을 들어야 한다. 고막을 울리는 것만이 소리요 말이 아니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총명한 지혜로 알아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③ 색 사온(色思溫): 표정, 즉 낯빛은 항상 온화하게 가져야 한다. 화가 난다든가 마음에 싫더라도 그것을 나타내지 말고 항상, 고요하고 온화한 표정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④ 모 사공(貌思恭): 몸가짐이나 옷차림 등은 공손하게 해야 한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꾸미면 건방지다는 말을 듣게 되고, 따라서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공손하고 겸허한 모습이 되도록 공부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⑤ 언 사충(言思忠): 말을 할 때는 진실 되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의 충(忠)은 '진실' '참'을 의미한다. 한 마디라도 헛된 말을 하면 사람이 경망하고 부실해진다.

⑥ 사 사경(事思敬): 무슨 일이든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공경해야 한다. (어른을 섬기는데는 공경스럽게 해야 한다. 어른을 섬긴다면서 공경하지 못하면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다.)

⑦ 의 사문(疑思問):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물어서 깨달아야 한다. 의심나고 모르는 것을 그냥 넘기면 영영 알 길이 없게 된다.
의심나면 묻고 배워서 하나라도 깨우쳐야 될 것이다. 묻는 부끄러움보다 모르는 부끄러움이 더 큰 것이다.

⑧ 분 사난(忿思難): 분하고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참고 삭여야지 그대로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 만일, 성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그대로 분출하면 어려운 결과가 생길 것이다.

⑨ 견득 사의(見得思義): 재물이나 명예나 무엇이든 자기에게 보탬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자기에게 보탬이 된다고 허겁지겁 덤벼들면 오히려 화근이 되는 수가 많다.

재물이 생기면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명예나 지위가 자기에게 돌아오면 이 명예가 나에게 합당한 것인가, 이 지위를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처신해야 그것들이 진정한 보탬이 되는 것이다.

다. 몸차림

비록 자기의 몸이라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영향이 남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등한히 할 수 없다.

또한 자기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사회인으로서의 자기의 위치가 정해진다는 점에서도 몸차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음가짐이 자기의 정신관리라면 몸차림은 자기의 육체관리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육체라는 유형의 그릇에 정신이라는 무형의 생명을 담아놓은 것이다.

무형의 정신도 표정이라는 창을 통해서 남에게 보여 지는데, 하물며 유형의 육체는 마음과 상관없이 남의 관찰의 대상으로 노출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 육체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예스러운 것인가를 알아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몸차림을 해야겠다.

1) 정결한 육체관리

우리가 예절을 바르게 실천하려면 예절의 냄새와 예절의 색깔과 예절의 소리를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 예절의 소리는 언어예절을 의미하며, 예절의 색깔은 화장과 복장예절을 말하고, 예절의 냄새가 바로 육체관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냄새란 코로만 맡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도 향긋함과 역겨움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육체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음은 눈으로도 맛을 식별한다는 의미이듯이 아름답고 정결한 몸맵시를 보면서 정겹고 향긋한 느낌을 받는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 된다.

① 자주 목욕해서 몸을 정결하게 한다. 더러운 몸은 자기 자신도 찜찜함을 느끼지만 악취를 풍겨 남이 접근하지를 않는다. 대인관계에서 남이 나를 역겹게 여긴다면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② 얼굴을 자주 씻어 깨끗하게 한다. 지저분하고 추한 얼굴은 사람 전체를 지저분하게 만 든다.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온화하고 청순한 얼굴은 생김새보다도 표정과 깔꼼함으로 규정된다.

③ 이를 희게 닦고 냄새가 나지 않게 한다. 우리의 이의 원색은 흰색이다. 새하얀 이에 아무 냄새도 풍기지 않는 입이 요구된다.

특히 아이들의 이갈이에 신경을 써서 이가 고르게 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

틈에 음식의 찌꺼기가 끼이지 않게 해야 한다.

④ 코를 정결하게 한다. 특히 코털이 밖으로 나오도록 방치해 두어서는 아니 된다. 자칫
소홀하기 쉬운 콧속이나 코털이 얼굴 전체를 지저분하게 한다.

⑤ 귀를 청결히 한다. 귀의 뒤나 귀 바퀴에 때나 먼지가 있거나 귀지가 밖에서 보이면
추하게 보인다. 귀속을 자주 털어내며 깨끗히 닦는다.

⑥ 머리를 자주 감고 단정하게 빗질한다. 머리모양을 깔끔하고 정결하며 가지런하게 한
다. 자기의 체형과 얼굴의 윤곽에 균형을 이루도록 머리모양을 매만진다.

지나치게 호들갑스럽거나 가리마가 뻗어있거나 자주 감지 않아서 찌들면 보기 흉
하고 악취가 난다. 아무리 모양을 났더라도 가지런히 빗질이 안 되면 흐트러진 인상을
준다.

⑦ 수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염을 기르는 사람은 얼굴의 윤곽과 나이에 걸맞게 모양
을 낼 것이고, 깎는 사람은 정갈하고 짧게 깎아야 한다. 기르는 수염인지 깎는 수염인지
분간할 수 없이 지저분하게 관리하면 얼굴 전체가 추하게 보인다.

수염을 기르는 경우라도 손질을 자주해서 단정하고 깔끔하게 할 것이며, 남의 눈에 거
슬리는 모양은 삼가야 한다.

⑧ 눈이 맑아야 한다. 눈곱이 낀다든가 금방 자다가 일어난 사람같이 눈빛이 어두우면
총명을 잃는다. 눈이 맑아야 마음이 맑고 깨끗해 보인다.

⑨ 손 · 발톱을 짧게 깎는다. 손톱이나 발톱은 짧게 깎는 것이 원 모습이다. 아무리 자기
의 취향에 좋다 하더라도 길게 자란 손톱 · 발톱은 남에게 불결한 인상을 준다.

2) 화장(化粧)

화장은 자기표현의 기법이고 그 목적은 건강한 자연색을 표현해 자기를 보호
하는 것이다. 화장을 야하고 천박하게 하는 사람은 그 마음가짐이 야하고 천박
함을 나타낸다.

화장이 건강한 자연색을 넘어서 유별나면 자기 보호의 기능이 아니라 위험 앞
에 자기 노출을 자청하는 것이 된다. 매뚜기가 여름에는 파란색을 지나다가 가
을에는 노란 옷을 입는 것은 벼가 여물 듯이 익어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의 색깔
과 맞춰 외적으로부터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다.

곤충과 미물들도 자기 보호를 위해 색깔의 표현을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외적의 눈에 잘 띄이도록 표현한다면 그 속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
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자연색의 표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색깔과 어울리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섞였을 때 화장의 색깔이 유별나다면 그것은 건전한 의미에서의
화장이 아니라 위험한 자기 노출의 수단에 불과하다.

① 얼굴 피부의 화장은 건강한 자연의 혈색을 표현한다. 창백하다거나 지나치게 검은 피부를 건강한 혈색으로 가꾼다. 순백도 아니요 붉은 색도 아니고 혈색 좋은 피부의 색 깔이어야 한다.

② 입술의 화장은 건강한 자연의 붉은 빛을 표현한다. 푸르거나 흰 입술, 아니면 피부의 색깔과 같아 윤곽이 분명치 못한 입술에 건강한 자연의 입술 색을 칠해서 건강미를 나타내며 윤곽을 뚜렷하게 한다. 건강색을 지나는 빨간색은 혐오감을 일으킨다.

③ 눈의 화장은 윤곽을 분명하게 하고 맑은 눈빛을 돋보이게 한다. 눈빛은 맑아야 하고 눈의 윤곽은 분명해야 얼굴 전체의 윤곽이 뚜렷해진다.

눈꺼풀이나 눈두덩 및 속눈썹의 화장의 목적은 맑은 눈빛을 돕고 분명한 눈매를 갖는 데에 있다. 지나치게 엉뚱한 색깔로 초자연색을 연출하는 것은 혐오감을 일으킬 뿐이지 아름다움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④ 눈썹의 화장은 건강미를 갖도록 한다. 한국인의 눈썹은 무성하지도 않고 파랗지도 않은것이 정상이다. 눈썹의 모양이 성격을 나타내는 데도 관계가 있으므로 눈썹의 색깔은 건강색을 표현하고 눈썹의 모양은 온화하고 단정함을 위해 교정한다.

⑤ 향수는 순수한 체취를 위해 사용한다. 특이하게 자극하는 향수는 청순함을 해친다. 자기만이 풍기는 이상한 체취를 중화시켜 통상적인 체취를 풍기게 하는 방법으로 향수는 선택되어야 한다.

3) 장신구(裝身具·액세서리)

근래 발굴되는 고대 무덤에서도 귀고리, 팔찌 등의 장신구가 발굴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인들이 즐겨 패용하는 액세서리가 퇴폐풍조라고 개탄조의 말을 하기도 하는데, 남녀를 막론하고 장신구를 패용한 역사는 아마도 인류사와 함께 한다고 보아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관료사회에서는 신분과 위계를 나타내기 위해 패용하였고,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아름답게 꾸미려고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사이 액세서리라는 장신구는 분명히 어딘가에 덧붙여져서 본체를 꾸미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인간이 패용하는 장신구는 사람을 꾸미는 것이며, 꾸미는 목적은 아름다움과 아울러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만일 그것이 악용되거나 오용되어서 오히려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추하게 만든다면 패용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과연 어떤 액세서리를 어떻게 패용해야 아름답고 편리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

가) 반지

반지는 장식용으로 끼우지만 우정의 표시, 다짐의 표시, 동류의 표시로도 끼운다.

① 장식용 반지는 왼손 가운데 손가락에 끼운다. 반지를 왼손에 끼우는 까닭은 오른손은 쓰임새가 많아서 거리적 거리고 불편하지만 왼손은 별로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② 약혼, 혼인 등의 다짐의 반지는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끼운다. 넷째 손가락은 약지(藥指)라고도 해 신성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③ 우정으로 주고받는 우정의 반지는 왼손 두 번째 손가락에 끼운다. 두 번째 손가락은 무엇이든지 가리킬 때에 사용되어 우정의 표시로 안성맞춤이라 하겠다.

④ 동류, 즉 동창생이나 모임, 조직원의 표시로 같은 모양의 반지를 함께 나누어 끼울 때는 왼손 두 번째 손가락에 끼운다. 동류의식은 우정과도 통하기 때문이다.

나) 귀고리

귀고리는 얼굴의 윤곽을 돋보이게 하고 어깨와 머리中间的 공간 장식의 효과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긴 사람은 내려뜨리는 긴 귀고리가 어울리지만 목이 짧은 사람은 짧은 귀고리가 어울린다.

귀고리의 색상은 얼굴 등 피부의 색깔과 의복의 색깔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 팔찌

팔찌는 팔뚝에 끼우기도 하고 손목에 끼우기도 한다. 팔뚝에 끼우는 경우는 양장의 경우 팔뚝을 노출시켰을 때 공간을 채우는 효과를 위해 끼우고, 손목에 끼우는 경우는 장식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손 등 피부의 색깔 및 의복의 색상등과 어울려야 한다.

라) 안경

안경은 시력을 보완하기 위해 끼거나 강렬한 광선에서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끼는 보안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장식용으로 끼는 경우도 많다. 시력 보완을 위해 끼는 안경은 그렇지 않지만, 장신구로서 꾸미기 위한 안경은 어른의 앞에서나 의식 등에 참석할 때는 벗는 것이 예의이다.

마) 목걸이

목걸이는 아름다움을 꾸미기도 하지만 목 부위의 허전함을 메꾸는 공간장식의 효과도 있다. 목이 긴 사람은 굵고 두터운 목걸이가 어울리지만, 목이 짧은 사람은 가늘고 얇은 것이 더 좋다.

피부 색깔이 어두운 사람은 밝은 색이 좋고 피부가 밝은 사람은 짙은 색도 좋다. 피부와 의복의 색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선택한다.

바) 브로치

브로치는 한때 단추나 옷고름 대신 사용되었었지만 근래는 장신구로서도 패용

된다. 몸에 붙이거나 달지 않고 옷에 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복의 색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브로치는 의복의 디자인에 있어서 공허하고 민승한 부분을 메꾸고 장식하는 효과도 가졌다. 따라서 크기와 꾸밈새가 복장의 디자인과 걸맞아야 아름답다.

사) 노리개

주로 한복을 입을 때 옷고름이 달린 곁의 앞섶 속에 감춘다. 아름다운 패물이나 은장도(호신용)등을 매어달고 고운 술을 늘어뜨린다.

노리개는 장롱의 손잡이에 달듯이 완전히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옷고름에 달되 곁에 얹히는 앞섶 속에 매다는 끈을 감추어 노리개 자체만 보일 정도로 한다.

아) 장신구의 공통예절

이상 설명한 각종 장신구를 패용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예절은 다음과 같다.

- ① 피부의 색깔 및 체형과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복장의 디자인 및 색깔과 어울리도록 선택한다.
- ③ 계절과 환경 및 시간에 맞출 줄을 알아서 다양하게 패용한다. 특히 계절에 있어서는 더운때는 돌(보석류)을 소재로 한 장신구를 패용해야 시원한 느낌을 주고, 선선하거나 추울 때는 금속(금 은 쇠붙이)을 소재로 한 장신구를 패용해야 온후(溫厚)한 느낌을 준다.
- ④ 잔치와 같이 즐거운 곳에서는 아름답고 현란해도 되지만 슬픈 일에 참석할 때는 단조로운 것을 선택하거나 패용하지 않아야 한다.

문 화 원 이 모 저 모 NEWS

포천문화원

실버예술단, 다채로운 공연 활동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 실버예술단은 문화의 계절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포천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다. 10월 8일 서울 동작문화원 대강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및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전국 문화원장 및 문화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0 문화원의 날 기념식'에서 초청 공연을 가졌다.

포천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추억의 실버예술단' 단원들은 홍순선 강사의 지도 아래 섬마음선생님, 사랑이란 두 글자 등의 곡을 연주하여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으며, 문화계 내·외부 관계 인사들과 대한민국문화원상 수상자들은 아름다운 은빛 삶의 모습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리고 10일에는 영북면 산정리에 소재한 '평강식물원'에서 식물원을 찾은 관람객을 위한 '들국화가 들려주는 가을음악회' 문화나눔 공연이 있었다.

이날 추억의 실버악단은 섬마를 선생님, 사랑이란 두 글자, 고향의 봄 연주 및 하모니카 독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동요메들리를 연주했고, 다문화어울림합창단은 비둘기집, 강원도아리랑을 우리 국악 반주에 맞추어 합창하여, 이날 모인 방문객들에게 가을의 정취와 함께 문화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포천사랑 Festival' 축제 참가
16만 시민 화합의 한 마당에서



포천문화원 문화학교는 10일 포천시 호병천 복개주차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포천사랑 Festival' 행사에서 포천시민을 위한 전통문화 공연과 문화체험홍보부스를 운영했다.

'16만 포천시민 화합의 한마당, 함께하면 행복해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우리나라 고유문화를 선보인 포천문화원 문화학교는 우리춤, 민요, 뽕리댄스, 가야금병창(국악협주), 다문화어울림여성합창단, 추억의 실버악단 등 60여명이 참여하여 한량무, 군밤타령, 아리랑 등 우리고유의 문화공연 및 뽕리공연, 하모니카연주 등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으며 흥에 겨운 어르신들이 무대 앞에서 함께 춤을 추는 등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또한 문화체험 홍보부스에서는 포천문화원 문화학교 전통 및 현대 서각반의 수준급 서각작품전시와 함께 목판각 인출 및 시연을 선보였으며, 포천문화원 예술인동우회의 가훈 써주기 등 이날 모인 시민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경남 거창문화원

2010년 목요철학과 인문학 강좌 종강식

거창문화원(원장 정주환)에서는 지난 10월 29일 거창대학 세미나실에서 계명대학교 부설 논리윤리교육센터에서 주관하고 거창문화원에서 시행한 2010 『목요 철학과 인문학 강좌』 종강식을 가졌다.

지난 5월 13일 개강하여 10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논어·대학·중용·맹자 등 고전과목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일상생활에 접목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소 군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인문학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소외된 학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된 인문학 강좌는 지역 주민들의 정신문화 함양과 자아성찰 및 교육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는 좋은 교육으로 평가받고 있다.

거창 상여소리, 안동 국제 탈 페스티벌 시연 공연



거창문화원 부설 거창전통장례의식보존회(회장 이판기)가 지난 10월 27일 안동에서 열린 '국제 탈 페스티벌' 행사에 초청 받아 시연 공연을 가졌다.

안동 국제 탈 페스티벌은 한국의 탈춤 및 민속공연과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공연을 주제로 하는 축제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시연에는 70여명의 보존회 회원들이 행상소리, 가래소리, 당구소리와 행상 운구 모습을 선보여 거창의 전통장례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거창상여소리 공연에 앞서 안동시 서후면 대수서리에서 초상이 났을 때 예부터 행해온 '한두실 행상소리'가 시연되어 안동지역 행상소리와 거창지역 상여소리를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제14회 거창역사 출발 동서남북 퀴즈대회



거창문화원에서는 지난 10월 3일 스포츠파크 내 행사장에서 제14회 거창역사 출발 동서남북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 유산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 대회에 관내 초등학교 300여명이 참가하여 OX퀴즈와 단답식 문제풀이로 총 21명이 입상하였으며, 으뜸상은 아림초등학교 6학년 윤진 학생이 수상하였다.

거창문화원은 이번 대회 입상자들과 6월에 실시한 경로효친모범청소년 표창자들을 대상으로 11월 중 문화유적 바로 알기 순회강좌를 실시하여 책으로만 공부했던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실제로 접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택문화원

'노을동요제' 첫 해부터 성황 서울 원목초교 성태현 어린이 대상



문화원이모저모 NEWS



노을이 아름다운 계절 10월을 맞아 동요 '노을'의 출생지 평택에서 개최된 '제1회 노을동요제'에서 서울 원목초등학교 성태현 어린이가 영예의 대상인 경기 도지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평택문화원(원장 오용원)이 주최한 '제1회 노을동요제'는 1984년 MBC창작동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동요 '노을'을 기념하고, 평택시를 노을의 본 고장으로 홍보하는 한편 문화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을' 탄생 26년 만에 처음 개최하게 됐다.

이날 동요제는 평택 동식초등학교 합창단이 선사하는 동요 '노을'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문을 열었고, 전국에서 80여 팀이 참가해 치열한 예선을 거친 15개 본선 진출팀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창작곡과 국악곡 등 저마다의 기량과 가창력을 뽐내 600여명의 관람객으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날 심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귀복 부회장이 심사위원장을, 한국동요협회 오세균 회장과 소프라노 이미경, 동요 '노을' 작가, 작곡가 이동진, 최현규 씨 등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을 위촉,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동식초등학교 합창부를 비롯해 국악동요 소리샘, 소프라노 이미경, 울산 노래터아이들이 축하공연을 해 동요제의 불거리를 더해줬다.

이 대회에서 최우수상은 성남 분당초등학교 안가를 어린이가(참가곡 '알밤 주우러 가자') 수상해 경기도교육감상을, 우수상은 창원 하늘소리 중창단(참가곡 '나비편지')과 안양 회성초등학교 정소현 어린이(참가곡 '매미')가 각각 차지해 평택시장상을 받았다. 또 대상을 수상한 성태현 어린이를 지도한 김명미 선생이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서울 원목초등학교 성태현 어린이는 "작곡가 선생님이 저에게 선물한 '어린이왕자 이야기'는 은빛 거울 저 멀리 반짝이는 어린이왕자별을 이야기한 노래"라며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큰 보람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1년여에 걸쳐 '제1회 노을동요제'를 준비한 오용원 평택문화원장은 "첫 동요제인데도 전국적인 참여와 호응에 놀라웠으며, 많은 국민들이 동요 '노을'을 애창하고 아끼는 것을 직접 체감하게 됐다."며 "평택을 '노을'의 도시로 각인시키기 위해 '노을동요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문화원

단기 4343년, 「단군제 및 도당국 문화축제」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이 주최한 단기 4343년 「단군제 및 도당국 문화축제」가, 지난 10월 3일 오전 10시부터 남한산성 유원지 놀이마당에서 단군성조연합회(회장 이경식) 주관으로 개최됐다. 1부는 단군성조연합회가 '선 의식'을 진행했고, 2부 개천절 기념식은 성남농협 주부농악단의 풍물놀이와 한춘섭 원장의 경하시 '숫구친 이 나라여!'가 낭송되었다. 축하공연으로 소리친구회의 '부채춤', 소리와 몸짓 '다솜', 장수희 외 7명이 방아타령과 장기타령을 선보였고, 3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당굿 전수 조교인 오진수와 단군성조연합회 김동만, 김옥자, 송옥순, 한명례 등 회원들이 펼치는 「도당국 문화축제」에 신상진 국회의원과 이경식 단군성조연합회장과 성남시민 5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윤종준 연구위원,

「제18회 성남시 문화상 - 학술부문」 수상



지난 10월 8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제37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제18회, 성남시 문화상' 시상식이 있었다. 올해 '성남시 문화상 - 학술부문'을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윤종준 상임연구위원이 수상했다. 윤종준 연구위원은 성남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역사인을 재조명, 천림산 봉수 등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활동, 성남지역 독립운동사 발굴 연구, 탄천지명 유래의 올바른 역사적 배경 규명 등 학술연구 및 저술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제3회, 성남문화원의 날 _ 제13회 강정일당상 전달



성남문화원은 10월 11일 오후 4시 문화원 강당에서 문화원의 날 기념식을 갖고 '제13회, 강정일당 상' 및 '제13회 성남사랑 글짓기' 시상식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제13회 강정일당 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영의(교육경력42년, 수필가)씨가 한춘섭 원장으로부터 선정패와 부상을 각각 받았다.

강정일당(1772~1832)은 성남문화원 청원으로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1996년)된 한국 문화인물로 추앙받고 있는 조선 후기 여류문사로, 성남문화원은 매년 강정일당의 업적을 기리며 여진 인품과 부덕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을 선발해 시상해 오고 있다.

한편, 제3회 성남문화원의 날을 맞아 심홍임이사와 조석호 이사에 대한 연합회장, 도지회장 표창과, 박미화 간사에 대한 원장 표창 등으로 진행되었다.

동두천문화원

다문화가정 합동 전통혼례식



동두천문화원(원장 안민규)에서는 지난 9월 25일 오전 11시 동두천시민회관 공연장에서 다문화가정 합동전통혼례식을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문화원 부설 동두천예절원(원장 김임순)에서 주관한 이 행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예비다문화가정에 전통혼례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해줌으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우리고유의 미풍양속을 함양하고, 잊혀져 가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혼례의식을 널리 홍보하여 전통예절문화를 계승 발전시켜나가고자 개최하였으며 시장, 시의회 의장, 문화원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다문화가정 2쌍의 결혼을 축하하였으며 동두천라이온스클럽, 무궁화라이온스클럽에서는 이들 고객과 내빈 약 300여명에 잔치국수를 봉사하여 결혼식의 흥을 돋우었다.

동두천문화원 부설 동두천예절원에서는 2011년에도 상하반기에 걸쳐 다문화가정 또는 어려운 사정들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합동전통혼례식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 양천문화원

다채로운 문화 행사

양천문화원(원장 이경동)은 10월 9일(토) 한글날 오후2시부터 양천공원에서 양천구민 성인 학생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대회에는 초등부·중고등부·성인부 등 1,500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나들이 시간을 가졌다.

또, 2010년도 제3차 문화회원 문화유적지 탐방 행사를 10월 12일 회원 약 100여명과 함께 『2010 세계대백제전』 문화탐방을 가졌다. 이날 백제의 도읍지였던 부여와 공주 일대의 행사장과 사비성 등의 문화유적을 탐방하면서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와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며 배울 수 있었다. 다음으로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 제11회 종합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문 화 원 이 모 저 모
NEWS

이번 전시회의 작품들은 금년 동안 양천 문화원에서 개최한 대회 수상작을 전시하였고, 10월27일 오후4시 30분부터 문화회관 1층 해바라기 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양천문화원의 행사 중에는 구민 가족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으로 우수영화상영이 있었다.

10월 8일 금요일부터 10월 10일 일요일까지 사흘간 10월의 우수영화로 선정된 <도라에몽-진구의 인어대해전>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상영하여 극장을 찾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경북 의성문화원

제 28회 의성문화제



의성문화원(원장 허영자)이 주최하는 의성문화제가 의성군 후원으로 10월 7일과 8일 열렸다. 7일 저녁, 군민의 평안과 풍농을 기원하는 사직제가 엄숙히 거행되었다. 다음날 각 문화단체들이 문화학교를 통해서 습득한 기량들을 한 자리에 모여 전시회를 열고 시연을 해서 군민들의 정서함양에 크게 한 몫을 한 행사였다. 그리고 군민들을 위한 먹거리 코너, 가훈 써주기, 탁본체험, 그리고 어르신들의 짚공예 등 다양한 볼거리로 성황을 이루었다. 해마다 의성문화제는 군민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로서 늘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마포문화원과 자매결연 조인



10월 15일 의성문화원과 서울 마포문화원은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졌다. 때마침 마포에서는 삼강나루 마포새우젓축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행사시간에 맞추기 위해 의성문화원 허영자 원장을 비롯해서 문화원 임원들이 새벽길을 재촉해 서울로 향했다. 마포에는 황포나부끼고 새우젓 냄새가 가득했다. 행사 관람 후 마포문화원장님과 직원들의 환대 속에 조인식을 마치고 식사와 정담을 나누며 형제의 정을 다졌다.

제 13회 서편제 소리축제



의성문화원 임원들은 보성 소리축제를 참관하기 위해 새벽길을 나섰다. “남도 사람치고 소리 한 자락 못 넘기는 사람 없다”는 말 뜻을 실감하고 돌아온 여행이었다. 의성문화원과 자매의 연을 맺은 보성문화원 축제에 초대된 것이 행운이라면 행운이었다. tv에서나 볼 수 있는 유명 소리꾼들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신인 명창을 발굴하는 판소리 대회도 함께 열린 보성을 대표하는 축제였다. 한복을 차려입고 나오신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소리자세가 몸으로 체득 된 것 같아 보였다. 그 한복자락 속에서 숨겨진 흥겨운 가락을 뒤로 하고 돌아오는 가을들뜬 한결 더 평온하고 넉넉했다. 그리고 보성 문화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환대에 집념의 예를 새로 배우고 온 기회가 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0지역문화아카데미 해외연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에서는 창의적 지역문화 개발사례 학습을 주제로 우수한 해외 지역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견학과 운영현황 답사를 실시한다. 연수기간은 2010년 11월 1일부터 6일까지 4박 6일간 영국 런던 및 게이츠헤드 내 지역문화 개발 사례지를 둘러보게 된다. 게이츠헤드는 과거 공업화의 황폐화된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도시 재생 사례이다. 이 행사에는 국내 연수 조별 워크숍 발표 심사로 선정된 20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평택 웃다리 문화촌 김윤겸, 영천문화원 이원석, 강릉문화원 정운성, 속초문화원 이정무, 강릉문화원 강릉농악보존회 박미애, 강릉단오제보존회 최인수, 한국문화원연합회 이만아씨 등 문화원 종사자들도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여성문화콘텐츠 발굴사업 성과보고회

연합회(회장 최중수)는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지역 여성문화 한마당 "여성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날" 행사를 서울 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성북문화원, 대전대덕문화원, 담양문화원, 강진문화원, 북한전통음식문화 연구원, 어디디아 공동 주관, 서울시 가족여성재단의 후원으로 개최한다. 이 사업은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을 반영한 양성평등 관점의 문화콘텐츠 지속 발굴과 지역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문화의 주체로서 여성의 문화창작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해 5년째를 맞고 있다.

제8회 국민의 시 낭송의 밤

연합회는 11월 25일(목) 17:30분부터 국회의사관 1층 대회의실에서 국회와 공동으로 시국민의 시 낭송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방승인 김동경씨의 사회로 국회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유명 시인, 문화원장, 다문화 가족과 청소년 등이 출연하며 다채로운 축하 공연도 열린다.

전국 농업인 풍물경연대회

연합회는 11월 6일(토) 서울 남산 한옥마당에서 개최되는 제15회 농업인의 날 기념 전국 농업인 풍물경연대회를 후원한다. 이 대회는 국악방송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농업인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풍물을 통해 우리 민족 고유의 대중정신을 고취시키고 농업인들에게 축제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농업인들의 고된 삶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고,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08년에는 황성문화원이, 2009년에는 제주구좌읍민속보존회가 대상을 차지하였고 올해는 시흥, 춘천, 청원, 온양, 군산, 고흥, 경산, 함안, 제주 등 9개팀이 경연을 펼치게 된다. 대상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원이 지급된다.

최중수회장 불교 TV 출연

한국문화원 연합회 최중수 회장은 10월 22일 불교TV '어머니, 나의 어머니' 독화에 참여하였고, 11월 4일 방송예정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회

제2회 경남 어르신 농악경연대회

경남도지회(지회장 조훈래)는 2010년 11월 9일(화) 함안군 함주공원의 열린문화마당에서 제2회 경남도지사배 어르신 농악경연대회를 함안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한다. 농악을 통한 어르신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각 지역 농악의 우수성을 계승 발전시켜 전승하기 위한 이 행사는 시부 10팀, 군부 10팀 등 총 20개 팀이 경연을 펼친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라남도지회

2010 전남문화원의날 기념식

전남도지회(지회장 김학근)는 2010년 11월 10일(수) 여수시민회관 강당에서 전남도지회 소속 22개 지방문화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남문화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만남의 장을 가진다. 이 날 행사는 여수 시립국악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정화선 교수(순천 청암대 문화관광학과)의 "전남문화 발전과 활성화" 특강과 전남문화상 시상, 제22회 전남향토문화상 시상, 향토문화연구논문 시상제 이어 김학근 도지회장의 기념사,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축사,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중수 회장의 격려사, 김충석 여수시장의 환영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

경기도지회(지회장 오용원)는 11월4일부터 5일까지 제12회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를 용인 양지면 금호 아시아나 인제개발원에서 실시한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문화원 직원 및 임원, 회원 그리고 시군 문화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계자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전통문화의 발굴 보존 전승을 위한 정보의 교류와 협동심을 고취하기 위한 이 연수는 첫 날, 최종민 교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의 "우리 문화와 우리문화" 강연, 한국문화진흥원 이대영 원장의 "일과 놀이가 하나 되는 세상" 강연, 수원, 안산, 구리, 안양, 의왕 문화원의 축하공연, 분임토의 등이 이루어진다. 다음 날에는 극작가 신봉승씨의 "국가 그리고 지식인들의 역사의식" 특강과 세종 옛돌박물관 관람 등의 순서로 시행된다.

※ 도지회 행사 내용은 12월호에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편집자 주)

문화원 소식

오산문화원 사무국장 임용 유종대

1967년 10월 15일 생 · 오산시 중앙동 체육회 이사
대한적십자 소나무봉사회 홍보이사 · 운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임용일자 | 2010년 9월 13일자

서울서대문문화원 사무국장 김행원

1961년 5월 24일 생 · (사)동방문화진흥회 이사
임용일자 | 2010년 10월 11일자

원 장 동 정 NEWS

신임 원장



강원 원주문화원 원장 장순일

황성군수
원주시 부시장
강원도 자치행정국장
원주문화원 이사
임기 | 2010. 11. 1 ~ 2014. 10. 31

퇴임 원장



강원 원주문화원장 강태연

원주 · 정선군수 역임
강원도 문화계장 역임



기장문화원 제4대 원장(연임) 강 훈

기장군의회 4대 전반기 의장 역임
민주평통 기장군협의회장 역임
바르게살기운동 기장군협의회장(현)
제3대 기장문화원장(현)
임기 | 2011. 1. 1 ~ 2014. 12. 31



서울 노원문화원장 태용철

해병전우회 중앙회 부총재
(사)한국국물관리 연구소 이사장



제4대 서울 은평문화원장(연임) 박인호

한국가로수보호(주) 회장(현)
한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현)
제3대 서울시 의원(현 의정회 부회장)
국제수상발명가협회 회장(현)
해병대전우회중앙회 부총재(현)
2000년 한국 신지식인 선정(발명가)



서울 노원문화원장 채규대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경영학 석사)
천우주택건설(주) 대표
한성특수공업(주) 회장
(주)한성 회장
노원애향회 이사장
노원문화원 원장(초대, 2대)

지역문화를 위해
헌신하신 뒷모습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韓國秋史書藝大展

제 7 회 한국추사서에대전

접수기간 **2010년 9월 27일 ~ 29일**
(18:00까지, 우편접수시 29일 도착분에 한함)

공모부문 한문, 한글, 문인화, 추사체, 전각

전시기간 **2010년 11월 16일 ~ 22일**
(시상식 11월 16일)

전시장소 과천시민회관 전시실 및 다목적홀

시상 대 상 - 1명(상금 1,000만원)
최우수 - 1명(상금 500만원)
우수상 - 4명(상금 각 100만원)
특별상 - 8명(상금 각 50만원)
특 선 - 50명(상금 각 10만원)
입 선 - 다수

문의 02-504-6514
www.gccc.or.kr

(후)437-802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45번지
과천문화원 (한국추사서에대전 운영위원회)

하이원리조트가 우리 소중한 꿈나무들과 함께 희망을 열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소년·소녀 가장으로 살아가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하이원은 행복디딤돌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원도 폐광지역은 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 걸쳐 있으며 과거 주요한 에너지
생산지였으며, 현재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관광메카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하이원 리조트